OCT 1 6 1981
~~OCT 3 0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41 1981년10월10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Saturday, October 10,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여행사와 항공요금—그 실태〉 <1>

여행사간 협정깨져
교민에게는 오히려 유리?

토론토 소재 5개의 한국계 여행사는 자율적으로 지켜온 여행사간 협정을 파기, 한국왕복 비행기표 가격경쟁을 벌일 추세이다. 한국(성낙윤), 서울(최동주), 신세계(김 창범), 제일(유지원), 천우(김현두)의 5개사 대표들은 지난 9월중순 모임을 계기로 그간 각 3천달러씩 적립했던 협정준수 적립금을 각자 회수했다. 이들 5개사는 뉴욕의 한국계 여행사들이 토론토 출발→한국왕복 CP(캐네디안·패시픽)표를 토론토보다 약 340달러 싸게 판다는 본보 8월20일자 보도에 대한 대책을 협의키 위해 일련의 모임을 가졌으나, 의견의 일치를 못보고 협정을 우선 파기키로 했다.

본보 보도이후 여행을하려는 고객들은 각 여행사에 가격을 문의한다음 중국계나 뉴욕한국계 여행사의 가격까지 알아보고 있어 이곳 여행사들은 협정가격을 준수하기 어렵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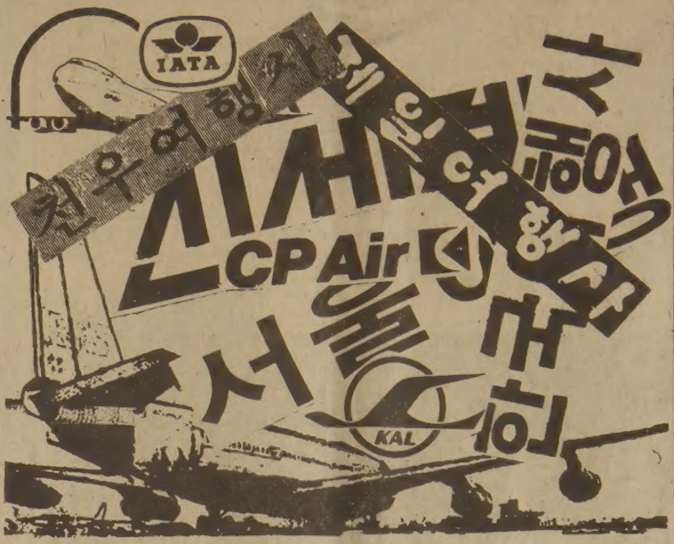
한 교민이 S여행사에가격을 알아본 결과"CP는 서울왕복 $1,380이고, KAL $1,360(LA경유), $1,320(뉴욕경유)이나 직접 나오시면 잘 해주겠다"고 묘한 여운을 풍기더라고 본사에 알려왔다.

한편 이들 여행사들은 협정파기 하기로 결정한 것 외 1개 여행사를 제외한 4개 여행사가 9월중 작은 안내광고를 제외한 모든광고를 취소, 본보기사에 대한 보복의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있다.

이로써 본사는 월간 약760달러의 광고수입이 줄어들었다.

광고취소 이유에대해 한 여행사 대표는"그 기사로 인해 우리는 많은 고객을 잃었다. 우리도 그만큼 비용을 줄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많은 교민들이여행문제에 대해 의문시 해왔던것을 요약해보면, (1)토론토의 한국계 여행사들이 과연 폭리를 취해왔는가? (2)한국의 유일한「대한항공」



시장질서 문란 예상

이 과연 요금, 써비스 면에서 교민들에게 불리한가? (3)서울서 구입하는 항공표 값은 왜 이곳보다 비싼가? (4) 어떤 방법이 가장 값싸고 편리한 여행인가? 하는 것이다.

본보는 이와같은 교민들의 궁금증을 밝히는 방향으로 여행관계 특집 시리즈로 종합취재 보도한다.

여행문제에 관한 독자들의 투고(서신 또는 전화 533-2362 편집부)나 관계자들의 정보제공도 환영, 모든 의견을 반영 예정이다. (계속)

社說 굳은 유대를
— 외환은행 진출에 거는 기대

지난 10월6일, 캐나다 최초로 한국의 은행이 토론토에서 문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캐나다 한국외환은행」의 개업이 그것이다.

이는 한국의 경제력, 즉 국력이 또 하나의 해외교두보를 확보, 진출한 고무적 현상으로 환영할 일이다.

조국 근대화의 대표적 양상에 비약적 경제성장을 꼽을 수 있다. 팽배하는 그 국력 신장의 두드러진 특징은 세계무대로의 무역진출과 해외금융계에의 발돋움을 지적하겠다.

이제 캐나다에도 한국의 은행이 정식으로 터잡았으며, 제2의 「외은(外銀)」이 수개월내에 뱅쿠버에서 개업케 되었다고 전한다. 한국계 은행이 이땅에서 활기있게 커짐은 그만큼 우리의 어깨도 넓어질 것이다.

한국의 은행이 이땅에서 문을 여는 의의는 ①한국자본의 캐나다 산업계 진출 ②캐나다 자본의 한국유치, ③무역금융의 가일층 활성화(活性化), ④교포사회의 저축성 신장, ⑤교포들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⑥모국에의 송금편의등 여러 각도로 유익한 측면을 예상시키고 있다.

이에 교포의 입장에서 외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가) 소규모 개인업체에 대한 융자,

(나) 집마련, 자동차 구입등 필요시의 대부,

(다) 적금, 저축 유치등 업무전개 도중에 있어, 모처럼 자라나고 있는 한인신용조합, 한맘신용조합등 현지 금융업체와의 마찰, 파열경합등으로 누를 끼치지 말 것과, 대업체로서의 대국적 견지에서 오히려 그들 군소금융체를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가 달라는 것이다.

선의의 경쟁은 민주사회의 두드러진 경향이며 누라서 탓하랴마는 만약 모국의 국영업체가 해외 현지의 교포사회 소업체를 위축시키는 영향을 끼치게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한갓 기우(杞憂)에 그쳐 주기를 바랄 뿐이다.

외은의 입장에서도 교포사회의 호응이나 협조를 얻지 못하고, 냉대 또는 외면만 당한다면 하등 유리할 바 없을 것이다.

한편 교포의 입장에서는 모처럼 모국의 은행이 이민현지에 진출했으니 이를 활용하여, 교민 리셉션때의 이장우 행장의 당부대로 이를 「키워주고 이끌어」줌이 같은 피를 이은 겨레의 당연한 도의적 유대의 식일 것이다. 같은 이자, 같은 조건이라면 구태여 타민족계 은행을 택하기보다 이를 돕는 뜻에서 저축예금, 모국송금, 무역관계 금융거래등에 우선적으로 외환은행을 거래상대로 삼음이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이같은 교민상대 거래를 위해 외은측은 불원간 한인상가로 불리우는 블루어번화가에 지점을 개설할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루 속히 그 계획이 실현되어 상호유대, 상호혜택의 바람직한 정경을 볼 수 있어지기를 기대한다.

양로원건립기금 위한
「현대작가초대전」성황
이미 20여점 예매

양로원 건립기금을 위한 자선사업인「현대한국작가초대전」리셉션이 7일 저녁 토론토시내 쉐라톤·호텔 2층 윈저화랑에서 열렸다.

조각품 170점, 서양화, 동양화64점, 모두 81점의 작품들이 전시된 가운데 200 교민들과 많은 캐네디안들이 참석, 첫날부터 약 20여점 18,200달러의 그림들이 예매됐다.

이날하오 5시부터 9시까지 개최된 리셉션(주관 서울대동창회 회장 이창희)에는 출품작가중 칼가리에 거주하는 권승렬씨만 불참하고 6인의 작가와 이번전시회를 주최하는 와이즈맨즈알파클럽(회장 차선경) 회원들이 관람객들을 맞아들였다.

전시장 입구에는 서양화가 조용각씨의 달을 주제로한 서양화 10점이 걸려있었다.

전시장을 둘러본 신동헌 화백은"정말 한국을 대표할수있는 작품들"이라면서 리셉션이 성황을 이룬데대해"우리 교민들도 이제 고급문화에 눈을 돌릴만큼여유가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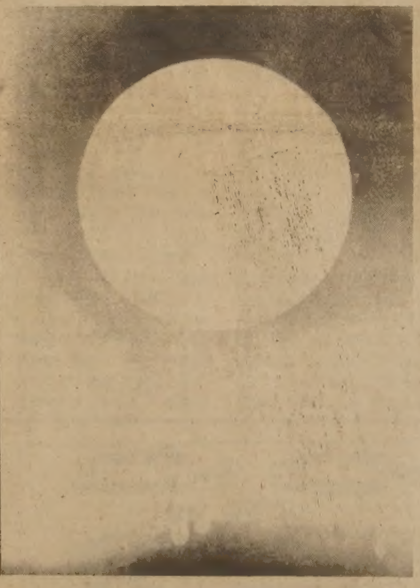
리셉션이 끝날무렵 전시장을 찾은 와이즈맨즈클럽 캔디(Candy)지역(토론토근교 온타리오 남서부) 회장 그렌·태스크씨는 "한국 화가들의 그림들은 경쾌한감을 준다.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동양화들도 이채롭다"고 말했다.

태스크부인은"이 전시회의 목적인 양로원 건립에 대해 노인문제는 세계 어디서나 아주 심각하다. 캐나다는 이미5, 60년전 노인들의 분가문제가 대두, 이제는 각자가 독립생활을즐기나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감을주나보다"고 말했다.

알파클럽 차선경 회장은"우리가 목표했던것이 교민들의 성원으로 충분히 달성될것 같다. 양로원 건립사업은 이 전시회 수익금 외에도 많은분들이 헌납금을 보내오고 있다"고 말했다.

알파클럽의 김이열 사무장은"와이즈맨즈클럽 회원들은 교민들에게 양보, 전시회가 끝날때까지 작품구입을 기다리겠다. 또 그동안 많은 분들이 건립기금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13일까지 쉐라톤센타 윈저특설화랑(2층 동쪽끝)에서 계속된다.



◇서양화가 조용각씨의 달을 주제로한 서양화 한폭

동구권과 스포츠교류

(서울8일=연합)한국 스포츠계는 동구권과 같은비수교국들과의 스포츠 교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있다.

대한 체육회의 정통한소식통에 의하면 이러한 결정은 IOC가 올림픽의 세계전역 보급이라는 기치아래 88년 하계올림픽 개최권을 한국에 준데 자극 촉진된 것이라고 한다.

"할렐루야"미 원정

한국프로축구팀 "할렐루야"는 8일 미국 서 친선경기를 갖기위해 서울을떠났다.

할렐루야 축구팀은 3 주간 예정으로 L.A, 뉴욕, 와싱턴, 시카고를 여행하며그곳 교포들로 구성된 아마츄어팀과 경기를 갖는다.

할렐루야 축구팀은 기독교신자 선수들로 구성된한국유일의 프로축구팀이다.

내년도 캐라반 참가
준비위 각부서 결정

토론토한인회(회장 박인순)는 지난7일밤 한인회관에서 82년도 캐라반행사및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위한 첫 모임을 가졌다.

캐라반 행사는 매년 6월 20~30일 실시되나, 참가신청은 10월15일 안으로 해야 되므로 긴급 모인 이날 회의에서 올해 선 캐라반 및 미인대회를 내년에는실시키로 결정, 아래와 같이 각 부서를 결정했다.

캐라반위원장 : 이대환
부위원장 : 박주삼
서기 : 강광선
연예 : 이영헌, 박인순, 이광성, 박주삼.
장치 : 구본모, 장기철
미술 : 김호, 이광민
재무 : 신영식

금값폭등세 19개월만에
사다트피격, 중동정세불안으로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급사는 금시장의 폭등을몰고왔다.

6일 토론토 증권시장의 금값 지표는 80년3월 이래 최고로 뛰어 7.76%의 인상을 기록했다.

역사적으로 금이나 금관계 주식들은 세계정세나군사적 움직임을 민감하게반응해 왔다.

사다트 저격사건은 중동에 정치, 군사적 불안을 초래했다고 말한 한 증권관계자는"사다트가 온건주의자로서 아랍진영의 많은반대를 받아왔으므로 그의계승자는 이 평화분위기를깨는 정책을 취할수 있다"는 논리에서 시장의 금값폭등을 설명했다.

당분간 이 금값의 오름세는 지속될것 이라고 내다본 증권전문가 존닝씨는 두번째 이유로 미국의 단기예금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80년 3월이후 금값의 급락은 미국의 고금리정책에 그 주요원인이 있다. 사람들은 금에 투자하기보다 안전한 은행의 높은 이자율을 노린다.

6일 런던시장의 금값은 전날 US $442.75에서 US $450을 기록했고, 스위스 쥬리히 시장에서는US $453.50에 거래됐다.

한편 금값의 폭등과는달리 캐나다달러는 약세를기록, 5일의 미화1달러당 83.45센트에서 6일 83.35센트로 떨어졌다.

그러나 한 금융전문가는 "캐나다달러가 지금까지안정세를 보여왔다"면서 중동정세의 불안은 북미대륙보다 유럽에 심각하게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 휴간안내 —

10월12일(월)은 추수감사절 공휴일인 관계로 본사는 휴무합니다.

따라서 13일자 〈한국일보〉는 14일자와 합본 발행합니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주식회사
이훈모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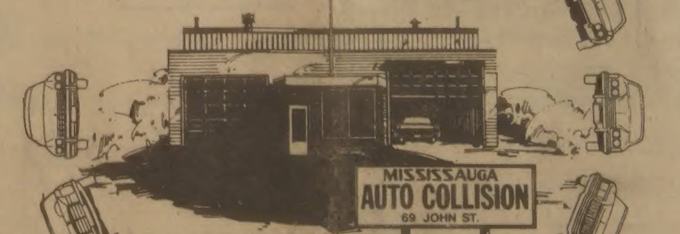
①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4,800. 렌트 $400. 리스1년+5년
ARBITRATION CLAUSE 있음(히팅은 주인부담)
ASKING : $44,000

②버라이어티 스토아 맡아서
일하실분 구함.

221-2084, 225-1204
(4975 YONGE ST.
AT SHEPPARD ST.)

HUN MO LEE
REAL ESTATE LTD.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현

SunLife OF CANADA

취급보험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R.S.P

김 신 영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TEL : B) 922-3111 R) 439-8885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SS 145

〈가을관광 안내〉 ①

황금의 계절을 찾아

캐나다의 가을은 현란하다. 여름의 강렬한 녹색세계는 더욱 밝고 화사한 단풍으로단장된다. 기후는 온화하고, 폭염은 그 기운을 잃고, 공기는 상쾌하다. 가을의 개방성과 신선함은 사람들을 야외에 좀 더 오래 있게 한다. 가을은 이상적인 계절이다. 여름에 들끓던 사람들은 모두 집에 가고, 호수는 조용하고, 7월과 8월의 폭염 속에선 볼 수 없는 붉은 광택이 있다. 가을은 원숙한 여행자들의 계절이다. 가을은 전국산천과 좀더 친숙해지고 싶어 관조하듯 둘러보는 여행자들의 계절이다. 가을 여행자들 위한 이 캐나다 전국 가을명소 소개는 장기간의 휴가계획이나, 주말을 이용한,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의 소풍에 도움을 줄 것이다.

— 온타리오 편

가을에 온타리오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무지개를 통해 사물을 바라보는 느낌을 가진다. 그러나 불타는듯한 숲, 새파란 호수, 추수한 시골의 풍요함만이 캐나다의 가장 유명한 관광주(州)의 가을풍경의 전부가 아니다.

온타리오의 명소들—'나이아가라 폭포, 쇼·페스티발과 세익스피어 페스티발, 토론토 사이언스 센터, 키치너 파머스 마켓, 오타와의 수많은 무료입장 박물관들은 여름에만 매력적이 아니다. 페스티발을 제외한 다른 명소들은 일년중 어느때고 가볼만한 가치가 있다.

세익스피어 페스티발(스트라트포드에서 열리는 연극제)과 쇼·페스티발(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에서 열리는 연극제)이 10월까지 공연을 끝내면 연극무대는 북미에서 뉴욕 다음으로 연극공연이 활발한 토론토로 옮겨진다.

여름명소로서 유명한 곳들이 가을까지도 계속 매력을 잃지 않는데가 많다.

켄싱턴 근교 세인트·로랜스강의 1천섬관광 유람선과 패리·사운드의 조치안만 3만섬 유람선은 10월 중순까지 운행한다.

관광객들을 19세기 중엽으로 데려가서 당시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들로 어퍼·캐나다·빌리지(모리스 버그)와 올드·포트·헨리(켄싱턴)가 있다. 이곳들은 10월15일까지 문을 연다.

해밀턴, 오타와, 토론토는 스포츠 애호가들에게 가을내내 메이저 리그 풋볼 경기를 제공한다. 토론토 엑시비션·스타디엄에서는 아메리칸 리그 소속 토론토「블루제이」의 경기를 볼 수 있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캐나다의 디즈니랜드「원더랜드」를 빼놓을 수 없다. 토론토에서 멀지 않은 북쪽에 위치한「원더랜드」는 노동절(Labour Day)부터 9월30일까지 주말에 연다.

온타리오 명소중에서 가을에 그 진가를 발하는 곳이 몇군데 있다.

예를 들면 수(Soo) 북쪽 114마일에 위치한 산림으로 둘러싸인 아가와 계곡(Agawa Canyon 을들 수 있다. 아가와 계곡은 알고마 중앙철도(Algoma Central Railway)의 기차로만 갈 수 있다. 아가와에 이르면 기차는 나이아가라보다 너 높은 폭포들과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둘러싸인 계곡을 통과하게 된다. 9월과 10월초경에 계곡이 주황, 노랑, 분홍, 녹색의 단풍들로 장식되면 방문자들은 대자연의 경관을 마음대로 만끽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느낌이 들 것이다.

또다른 가을의 관광지로 온타리오 남단 킹스빌·온·레이크이리에 소재한(Kingsvill on Lake Erie) 잭·마이너스 새 보호소(Jack Miner's bird Sanctuary)를 들수 있다. 10월1일부터 5월1일까지 여는 새보호소는 세계적으로 가장시설이 잘된 것중의 하나로 캐나다 북부에서 미국 남부로 이동하는 캐나다 거위, 오리등 철새들의 중간휴식처가 되고 있다. 10월말경이 되면 더 많은 큰 새들을 볼 수 있다. 잭·마이너스 새보호소는 고 잭·마이너스의 유언에 따라 일요일에는 문을 닫는다.

토론토 중심으로 1일단풍관광지로 유명한 곳 몇군데가 있다.

오렌지빌 근처의 혹클리·벨리(Hockley Valley)스키언덕은 가을에 네온이 빛나는 것처럼 아름답다.

수많은 호텔과 카테지로 점철된 유명한 여름휴양지 무스코카 호수군(The Muskoka Lakes)도 남부온타리오의 대표적 단풍관광지로알려졌다.

한편 패리사운드(Parry Sound) 중심부에 있는 파이어·타우어(The Fire Tower)에서 조지안만(Georgian Bay) 주변의 100스퀘어마일 이상되는 숲과 섬, 호수들을 조망하는 것도 일품이다.

만약 토요일에 여행을 하게 되면 온타리오 전역에 산재해 있는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s)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다. 수확계절인 가을에는 온갖과일과 채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싼값에 살 수 있다.

〈시〉

오후 한때

이석현

한낮이 기운 시각
빈 가슴으로 마주서는 태양은
데카르트의 햇살로 나를 돌려준다。
"생각하는 갈대"의 시름 부여안고
우러르는 하늘
그 정상이
시간을 벗어난 4차원의 정경으로
다가올 즈음、
만년 앞뒤를 순간에 오가는
심령과학에 안기면
"Gnothi Seauton !"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소크라테스와 나 사이
2천5백년을 좁힌 델포이 신전의
존재론이
열띤 파장으로 메아리한다。
오늘도
나와 그림자、
더불어 우주를 되새기며
노을에 선다。

※"데카르트의 햇살"=Cogito ergo Sum(나는 생각하므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갈대"=Roseau Pensant(파스칼)

◇이집트 군복을 입은 반군이 소제 자동소총을 사열대에 있는 사다트대통령과 정부요인들에게 난사하고 있다. 사다트는 반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앞에 보이는 것은 버려진 TV카메라로 카메라맨도 죽었다.

솔라즈의원의 북한방문 보고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김일성과의 대화

▲솔라즈 의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처로 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무장해제, 휴전협정을 이행하여 DMZ안에서 공동순찰, 군사분계선 표시 공동 수리, 군사훈련 사전통보등을 내가 제시했으나 김일성은 흥미있는 토론거리이지만 미국이 한반도 대결정책을 계속하고 남한에 군사원조를 주는한 이에 합의할수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 외교적, 군사적 수단에는 고집을 바꿀수 없으나 문화·경제·인도적 조처에는 융통성을 보이는듯했다. 김일성은 미국과 외교관계 없이도 문화, 학술 교류를하여 장벽을 헐고 싶다고 했다. 남한과는 전제조건없이 교역 관계를 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고 이산가족 결합과 서신교환을 하는 전제 조건으로 반공법 폐지를 요구하지 않을것을 시사했다.

그러면 미국의 외교정책을 위한 의미는 무엇인가?

미-북한 관계의 단절 요인이 시급히 무너질 전망은 없다. 김일성은 통일 방향과 수단에 관한 종래의 정책을 그대로 재다짐한 것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볼때 통일을 향한 진전을 초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제안도 다 거절한 점이다. 그렇지만 김일성이 양보한 것으로 보이는 민간교류, 교역, 가족재결합은 미국과 남한이 시험해봐야 할것이다. 물론 유사한 제안이 과거에 실패한 일은 있다.

북한은 이런 조처를 취하면 자기들이 진취적인 것처럼 북한민중에게나 세계에 보인다고 계산하고 있다. 여하튼 김일성을 그렇게 하도록하고 남한도 그렇게 나오게하는 것, 특히 북한을 서방세계와 널리 접촉케하는 것이 미국에 이롭다.

그러나 80년 7월 본인의 방문후 김일성의 확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인의 북한 방문에 매우 까다롭게 선택해서 허가하고 있다. 하바드 대학 교수단의 북한 방문이 허가됐다가 무기 연기됐고 한국어를 아는 미국인 교수의 방문등이 거절됐는가 하면 다른 몇명의 재미 한인과 국무성 대변이었던 한 변호사의 방문은 허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사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그들을 미국에 초청함으로써 김일성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계속 밀어야 한다.

북한이 과거보다 더 개방을 결정했다는 다른 징조가 보이는데 최근 영어교육을 확장한 점이다. 이 과정을 가속시키는 것이 미국에 이롭다. 핑퐁 외교가 30년 묵은 폐쇄사회의 이념과 정책에 금방 변화를 가져올수는 없으나 북한인들을 다른 세계의 관점에 노출시킴으로써 통일의 전망과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를 서서히 유발하게 할 수 있다.

남북한이 교역과 가족결합에 합의를 한다면 인도적 견지에서뿐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점에서 현저한 진전이 된다. 아직 많은 장애가 있지만 반공법 철회를 조건으로 오랫동안 주장하다가 중단했다는 것은 현저한 전진의 한단계이다. 남북한은 각각 선결 조건없이 교역하는데 찬성한다고 하는데 북한의 석탄과 남한의 소비재를 교환하는등 서로 약한 것을 보완하며 긴장도 완화할수 있다. 그러나 전 대통령의 남북한 수뇌 상호방문을 북한이 거절한 것은 가까운 장래에 진전이 있을 전망을 흐리게 했다.

외교적인정·미군철수는 서둘지 말아야

전쟁가능성 적으나 민간교류는 통일의시작

한편 미-북한간 민간 교류를 추진하는데 미국은 외교·군사상 노선을 일정하게 지켜야 한다. 한반도는 긴장되었으면서도 놀랍게 안정돼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전쟁 재발은 없을 것 같다. 북한은 6·25의 쓴 기억을 갖고 재건한 것을 다시 완전 파괴할 모험을 원치 않는다. 또한 중·소는 미군이 방위공약을 갖고 주둔해있는 남한에 김일성이 재공격하는 것을원치 않는다. 아마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김일성은 남한의 정치적 소요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통일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군보다는 북한군이 우세하고 휴전선에 군사력을 지난 10년간 증강한 점, 무장간첩 남파, 휴전선 땅굴, 평양의 호전적 선전등은 불안한 것이며 전쟁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뚜렷한 긴장감소가 없고 남북한 군사균형이 적당치 않은한 주한미군 철수는 실책이 된다. 또한 중·소가 남한과 외교관계 접촉을 않는한 미국이 북한과 직접 외교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실책이될수 있으며 미국은 3자(남,북,미)회담이나 양측 우방의 남북한 상호인정을 미-북한 공식 접촉의 조건으로 계속 고집해야 한다. 직접대화가 가능해진다면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국의 원칙상 확약이 그 대화 진전에 필수적이 될 것이다. 통일이라는 목표에 합의한다면 방법에 차이가 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진전하도록 길을 열 것이다.

북한의 전략은 근본적으로 그대로 있지만 그 술책은 조금씩 변한다는 징조가 있다. 술책의 변화가 때로는 전략의 변화를 초래할수도 있다. 변화란 시간이 걸리며 쉽지 않은 것이지만 만약 나와 김일성과의 대화에서 보인 가능성들의 어떤 것이든 현실화하는데 전진이 이루어진다면 궁극적으로 북한의 태도를 완화시키고 전쟁재발 위험을 줄일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만릿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중국 속담을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나의 북한 방문이 그 첫걸음이 됐는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윈스턴 처칠의 말대로 "전쟁, 전쟁이라는 말보다 대결, 대결"이라는 것이 낫다. (끝)

전국태권도대회
한인태권협회 주최

캐나다한인태권도협회(회장 정기태)는 10일(토) 상오10시 제4회 태권도대회를 연다.

토론토 요크대학 체육관(4700 Keele St.)에서 벌어질 이 대회의 각체급 결승전은 이날하오 7시 부터 벌어진다.

입장권 : $5, 어린이 $3.

연락처 : 922−5117(정기태)

대통령 후보 무바랙 지명
이집트 집권당 국가민주당서 6일추천
대통령선거실시까지 국회의장이 집권대행

〈카이로=UPI〉 이집트 집권당인 국가민주당은 6일 호스니·무바랙부통령을 차기 대통령후보로 지명했다.

무바랙부통령은 사다트대통령의 심복으로서 그의 후계자로 지목되어 왔다.

대통령선거가 실시될때 까지는 국회의장이 대통령권한을 대행한다.

◇차기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호스니 무바랙

사열대앞 20미터서 軍人4名이총기亂射

〈카이로-UPI〉 사다트대통령의 암살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면 군인들을 태운 한 지프차가 퍼레이드 행렬에서 이탈하더니 사다트대통령의 사열대로 가까이 와서 멈추었다.

이지프차에 탔던 8명의 군인중 4명이 차에서 뛰어내린 다음 사다트대통령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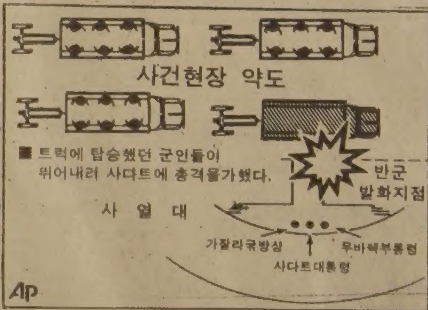
한 목격자는 사다트와 이들 군인들사이의 거리가약20미터 정도였다고 말했다.

목격자들은 누가 누구에게 총격을 가하는지 분간할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다트대통령에 대한 범인들의 총격이 시작되었을때 사열대위에 서있던 사람들은 총성을 불꽃놀이로 알았었다고 말했다.

총격이 시작될때는 마침 공군제트기가 3색연기를 내뿜으며 사열장 위로 저공비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2개인듯한 수류탄이 터지자 사열대의 사람들은 모두 땅에 납작 엎드렸다고 미국의 한 프리랜스 기자가 말했다.



신입생 환영의 밤
토론토대 한국학생

토론토대학한국학생회는 10일(토)하오7시 시내 Party Cafe(310 Bloor St.W)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연다.

1시까지 계속될 이 파티에 졸업생, 재학생, 신입생들의 많은 참가를 바란다고. 회비 : 신입생 무료, 재학생 : $5

연락처 : 298−0432(천명호), 749−3040(표봉현)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영철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 ~ 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534−2003

서울식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AUDI
CATCH A RABBIT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2 :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선남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통침구의학의 정수인 사암오행 침구전공)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럴병원근처)
☎ : 439−6717 김남집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예술의 향기 (2)

포도주와 피자집

유 회 자

첫날부터 빈틈없이 시간표가 짜여있다. 하루에 3가지의 세미나를 하고, 남는 시간은 각처에 산재해 있는 역사적인 올간들을직접 찾아가보고, 한두시간씩 쳐보고 하는것이 이 아카데미에서 내가해야할 주요 과제인 것이다.

이 아카데미에는 세계각국에서 6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든다. 그래서 내가 투숙한 호텔에도 여러나라에서 온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머물게 되어있다. 각자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왔지만 모두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쉽게 친구가 될수있고, 대화를 나눌수 있다.

첫날의 마지막 세미나를 7시에 끝내고, 몇몇이서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독일서온 두 남녀학생, 오스트랄리아에서 온아가씨, 캐나다 캘가리대학에서온 교수님, 필란드에서온 청년, 토론토에서 온 한국인 나, 모두 6명이 둘러앉았다. 우선 포도주를 큰병으로 하나 주문한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올간과 하프시코드와 관계를가진 사람들이다. 연주가가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기를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모이면 서로 전연 모르는 사이였더라도화젯거리는 풍부하다. 올간이나 하프시코드를 만드는 일부터 그 재료, 방법, 또수백년의 역사를 통해 존재해온 유명한 악기들에 관해서 연주 방법에 대해서, 화제는 무궁무진하다. 모두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태리에서 쓰여진 올간과 하프시코드 음악을, 19, 20의 2세기를 지나는동안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을 어떻게 다시 살려 올바르게, 음악적으로 연주할수 있나하는 것을 목표로 모여든 학생들이기 때문에모두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무궁무진한역사의산물에처음으로눈을뜨게 된 대학생으로부터 낡은지식에서 벗어나 새로운것을 배우려고 찾아온 대학교수까지도 열을 띄어 화제에 참여하기 마련이다. 이런 시간에 서로 배우고 서로 얻어듣는것도 세미나에서 배우는것 못지않게 흥미있는 일이다.

거의 9시가 되었다. 12시에 쌘드위치 하나먹고 빈속에 포도주 2잔이 들어가니 모두들 마음들이 들떠있는것 같다.

이제 배가고프니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한다. 다시 일어나서 한길로 나왔다. 사람들이 웅기웅기 나와신선한 저녁공기를 즐기고있는 좁은 신작로를 지나 피자집에 갔다. 캐나다에서 먹던것 처럼 큰 피자를 두개 시키자고 제언하였다. 웨이터에게 물으니 자기네는 그런것은 없고, 개인이 하나씩 주문해야 한단다. 다시 또 포도주 하나를 시켰는데, 필란드 청년은 붉은색 포도주 큰병을 또하나 시킨다. 네가 어떻게그것을 다 마실수 있는가 했더니 이집은 자기가 마신 것만큼만 돈을 낸다고한다. 손님들에겐 아주 편리한방법같다.

마늘과 안초비, 치즈가든 피자 한접시, 흰포도주 한잔, 샐러드 한접시, 모두가먹을것을 합쳐서6인분으로나누니 4달러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태리가 모든 물가가 대단히 비싸다고 듣고왔는데, 이곳은 시골이라 그런지 토론토보다는 싼것같다.

우리중에 다행히 오스트랄리아에서 온 리즈가 이이태리어를 할줄알아 모든 주문을 맡았다. 너는 어떻게 이태리말을 배웠는가물었더니 자기가 어렸을때살은 동네에 이태리인이 많아서 자연히 배우게 됐노라고 한다. 토론토처럼 이태리인이 많은곳도 없을텐데 단 한마디도 배우지 않고온 내속이 부끄럽기만하다.

새벽 4시에 피스토이아에 도착하여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8시에 아카데미를 찾아갔으니 첫날인 오늘은 계속 졸립기만 하였다. 밤12시까지 이야기하며 저녁을 먹었으니 긴 하루를 보낸 셈이다.

(계속)

◇독일·호주·캐나다 학생들이 한자리에 어울려 식사하고, 한잔 나눈다.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 사 광고국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73)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그녀는 예리한 울루 라는 칼을들고 딸의얼굴을 벗겨내어 자기의 늙은 머리에 뒤집어 썼다.

키비옥이 사냥에서 돌아오자 늙은 장모가 자기 아내인줄만 알고 함께 잠자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낮에는 물기가 있었지만 밤중에 물기가 말라버리자노인의 변장한 얼굴이 쪼개져서 벗겨져 버렸다. 키비옥이 속은것을 알자, 카약을 집어타고 이내 도망쳐 버렸다. 그는 도망가는 도중 사람처럼 말하는 사향소를 만나자 사향소는 키비옥에게 만일 그들과함께 남아서 오소리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면 자기딸을 주겠노라고 했다. 그러나 키비옥은 당신의 딸은 털이너무 많아 데리고 잘 수가 없다고 대답하고 카약을 몰고 다시 도망가기 시작했다.

키비옥은 끊임없이 도망가는도중 여러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또 이상한 것을 보게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는 그의부모가살던 큰 호수에 다시 돌아온것을 발견했고, 또 그가 배에서 내리기만 하면 곧 죽이려고 기다리고있는 에자카의 한무리를 발견했다. 키비옥은 카약을탄채 크게 외쳐댔다. "여바, 이 반짐승들아, 물속으로 들어와서 한번 싸워보자"에자카들은 너무 화가나서 호수로 헤엄쳐 쫓아왔지만 키비옥은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가서 그들의 뒤로 돌아가 칼로 싸운 이야기 이다. 그에 대하여 그이상 더 아는 바가 없다.

혜좌우가 이야기를 끝내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른 옛날이야기를 계속한다. —한남자가 다섯 부인을 데리고 살았는데한겨울에 돌쥐로 변하고 말았다는 늙은 칼라가 좋아하는 옛이야기도 했을 테고…….

이렇게해서 이 사람들의 기억속에있는 수백가지의 이야기가 되풀이 되지만아무도 실증을 느끼는 사람이 없는것 같다.

만일 저녁에 마실온 사람이 많으면 오텍은 북을 내려와 불위에 쪼여서 북속이 열로 늘어나게 되면 다른사람에게 맡긴다.

모인 사람들은 사양을하기 때문에 북은 이 사람한테서 저사람에게 옮겨지다가 결국 오호토에게로 간다. 그는 둘러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닥불이 있는 가운데로 걸어나온다. 잠시 그가 거기서 수줍은 듯이 서있으면 그에게 무슨 노래를 시킬까하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법석을 떤다.

드디어 오호토는" 그러면 좋소. 여러분이 큰 소리로 따라서 같이하면 노래를 하리다. 이것은 사냥꾼인 나를 자랑하기위한노래 입지요."

그는 북의 손잡이를잡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타봉을 가지고 북 가장자리를 가볍게 두드린다.

템포는 늦은리듬으로 시작한다. 오호토는 써커스에서 훈련받은 곰처럼사방을 둘러보면서 몸을 앞뒤로 흔들기 시작한다. 그는 허리를 앞으로 쭉 구브리더니 갑자기 노래를 시작한다. 도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오! 정말로 나는 사슴을 잡는 힘센 사냥꾼이라네. 바위가 널려있는 저쪽 들판으로나가면 쥐의 눈처럼 작은 내 눈으로는 바위인지 사슴인지 분간하기 어렵네. 눈위에 사는 새처럼 나의 허약한 팔로는 화살을 똑바로 쏠수 없다네. 바위가 널려있는 저쪽 들판으로 나가면…그러나 나는 들판으로 나간다네. 바위가 널려있는 저쪽 들판으로 나가서 바위에 화살을 겨냥해서 쏜다네. 언제인가는 이 바위중의 하나가 사슴일지도 모르니! 그러면 나는 훌륭한 사냥꾼이 되겠지. 바위가 널려있는 저쪽 들판에서."

한귀절이 끝나면 관중은 똑같이 합창을하고, 또 눈을 꼭 감고 앉은자리에서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아이 예이 야야/아이야야/아이야야야…"하고 큰소리로 반복한다.

오호토는 점점빨리 발을 놀린다. 그의 얼굴은 땀이 비오듯 하고, 모닥불에비친 그의 이그러진 그림자가불옆에 놓여진 바윗돌 사이에서 가물거린다. 템포가 더 빨라지고, 노래가 끝나자, 오호토는 그의자리에풀썩 주저앉고, 북은 다음사람 한테로 건네진다.

(계속)

광고는 533-2361

移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8>

담당 민병철

【美트루먼大 영어연구원장】

HE'S GONE OUT OF BUSINESS.

최근 Reagan대통령의 유가통제철폐발표가 있은직후 뉴욕의 Buffalo와 캐나다의 Ontario를 잇는 Peace Bridge(평화의다리)를 건너는 미국인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왜냐하면 Buffalo근방의 gas(자동차휘발유)값은 1갤런당 1불50센트인에반해 바로 국경만 넘으면 Canada에서는99센트이기때문。캐나다를 구경가는 관광객들이 아니라 기름만을 채우기위한 미국자동차들의 행렬인것이다。

따라서 Buffalo 지역에서는 "One out of four stations have already gone out of business."(평균 4개 주유소중에 한군데는 이미 문을닫았다)인 실정이다。

out of business는 「파산하다」다시말해서「사업이 망해서 문을닫다」는 뜻인 것이다。「그사람은 사업에 망했다」를 out of business를 넣어 영어로 옮겨본다면 He's gone out of business. 하면 될것이다。

실제로 캐나다까지 기름을 넣으러 다니는한 미국인은 "I'm saving money and helping conserve American gasoline at the same time."(캐나다기름을쓰는것은 돈을 절약할뿐아니라 동시에 미국기름을 아끼는것)이라는 색다른 애국론을 펴고있다。

A. What happened to Joe's gas station?
B. He's gone out of business.
A. Why is that?
B. Everybody in Buffalo is going to Canada to fill up their tanks.
A. That's too bad. What about your station?
B. It's the same for me. I'll have to go out of business before too long.

A. 조, 주유소가 어찌된 셈이죠?
B. 망해서 문을 닫았답니다。
A. 왜 그렇게 되었읍니까?
B. 버팔로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캐나다에가서 기름을 넣기 때문이죠。
A 참 안됐군요。당신네 주유소는 어떻습니까?
B. 저희도 마찬가지 입니다。멀지않아 곧 문을 닫게 될겁니다。

※fill up : 채우다。
What about…? ~은 어떤가?

본 칼람 담당자의 「민병철 생활영어」책은 이중언어 교육처및 교포들의 영어교육처수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본 캐너더·뉴스, 미국전역의 한국일보, 한국의 일간스포츠에 연재되고 한국의 MBC 문화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책의 내용을 전부 녹음한 카세트에는 「특수발음교정법」이 한국말및 영어로 수록되어있음. 또한 한국및 미주사상최초로 제작된 「영어회화 비디오」는 미국현지 생활 현장을 촬영하였으며 생활영어와 발음교정에 중점을 두어 편집되었음.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 BETA(60불), VHS(65불)
※U.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민병철생활영어
책、카세트、비디오

한국일보 안내광고

꽃 집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기 타

SINGER
●전화주문 받습니다. ●모든 종류 미싱수리,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 ●중고품 $49.95부터
CALL : MR. ARMAND OR PAUL (킹스카메라건너편)
☎ : 537-4661, 537-3841 620 BLOOR ST. W.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W. Tor. ☎ : 534-1085 김 춘 학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630 BLOOR ST. W. TOR.
☎ : 535-7772

SOMÉ JEWELLERY 쏘메쎄리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 225-4641

니폰·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집·방세·하숙

세놓습니다 : 2426 ST. CLAIR W. TOR. 1000 sq. ft. Store와 Full Basement. 2 베드룸 Apt. 스토아 : $400. 아파트 : $350
☎ : 635-7036(B), 221-9818(R)

방세 놓습니다 : 1 베드룸, BLOOR ST. W. 중심가
☎ : 533-0168 미스타 김

비자와 매스터카드로!
VISA master charge
오시지 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 : 533-2361

IATA
민속촌 관광
서울행 단체 모집
출발 : 1981년11월3일, 29일
귀환 : 자 유
요금 : 특별요금
※선착순 접수중
한국여행사

593 BLOOR ST. W. TOR.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밤11시 이후 호텔에서 청소하실분 구함
오후2시 이후 연락바람
☎: 425-1836 MR. 정

야채가게에서
파타임으로 일하실분 구함
☎ 690-6572

스토아 파타임헬퍼구함(남자분)
스카보로지역
☎: 267-0847

DRESS MAKER: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368-2819 미스타 윙

사람을 찾습니다.
김경남(Kyung Nam Kim)
Date of Birth: Nov·28·1950
(1950.11.28일생)
연락처: 문덕레(Duk Rae Moon)
☎: 744-2082

디시워서 구함: 저녁6시~10시
시간당 $5.00, 저녁제공.
☎: 532-5966 KAY

풀타임 남자헬퍼구함, 경험자에 한함:
오후3시~밤12시, QUEEN과 DUFFERIN
☎: 534-3338(아침9시~3시까지 전화) 미세스 김

두 아이와 가사일 도울분 구함:
오후6시~9시 연락바람
☎: 439-0825 미세스 최

재봉사(SERGERS)구함
COROMATION DRESS. LTD.
49 SPANIDA AVE. 4th FLOOR.
☎: 367-1414

ROBERTSON MOTORS(G. M.)
올스모빌·시보레 딜러
한국인 자동차 세일즈 맨 구함
● 경험이 없을시는 트레이닝이 가능함.
● 주100달러(차 판매에 관계없이)지급.
● 자세한 내용은 General Manager Bob Walsh 에게 문의바람. ☎: 466-1131

20~40세 풀타임 또는 파타임 여사무원 모집:
영어 능통하고 타이핑 경험자 우대함, 일이 쉽고 자유시간 많음.
SON BROTHERS태권도장
2188 BLOOR ST. W. (AT RUNNYMADE)
☎: 763-1155

경험있는 풀타임 가게 헬퍼구함: 오후4시~12시, 월 천달러 보장, 단 자동차 있어야 함.
☎: 839-1879 스카보로 거주자 환영

매매및 양도

피아노 매매: LESAGE피아노(아파트용 싸이즈)
액썰런트 콘디숀
☎: 741-5949 MRS. 민

이주관계로 가구 팝니다:
가구일체, 피아노, 플루트등
☎ 241-6733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DELE. 버라이어티 스토아:
& 비지네스 세일(영어로 문의)
☎: 535-3271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다목적 용도를 지닌 빌딩 세일
● 극장, 음악당, 체육관및 다른 큰방등을 포함.
● 다운타운에서 가까움 YANKA REALTY INC.
연락처: 537-4156
TOM SZYMANSKI

성업중인 햄버거 샾 팝니다
☎: 530-0748 DAVID

벡커 프렌차이스 매매:
좋은 비지네스 직접내방원함(FINCH & BIRTCH-MOUNT)(스카보로지역) 335 Glendower Circuit

매 매
365일 컨비니언스 버라이어티 스토아
PARKING하기 쉬운 중심가 에 위치. 시설완비 되있음. 다운페이 $20000에 단돈 $39500의 좋은 기회 L. VAN LIESHOUT R. E. LTD.,
☎: B) 705-457-2414,
705-457-2460 (Mike)
705-457-2071(Larry)
Haliburton Ont.

개인 하드웨어 스토아 매매
(PRIVATE HARDWARE STORE FOR SALE)
좋은 자리에 있음. ASKING $41,000.
더 문의 하실분은 791-8771, 9시에서 6시(월~토)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 791-8771 해밀톤

LOOK-SQUARE FOOT당 오직 2달러
컨버니언스 스토아 PLUS. 1년이 안된 건물내에 있음. 아주 긴 리스이고 독립적이며 실내장치가 잘 되있고 장래성이 좋음.
KEN MARESCAUX
A. E. LEPAGE(ONT.)LTD.,
☎: 492-7333

콘도미늄 매매 또는 렌트: 3베드룸, 1½목욕탕, 2car 파킹장소, 렌트 $750, 매매 $54,000, 오후2시 이후 전화요망. ☎: 421-6016 MR. MASUDA

CHINA SHOP
건강상 이유로 매각코자함, 가격절하 Royal Doulton 프랜차이즈 상점임. 미국과 거래량 많고 발전의 여지 충분. 살림집 붙어있고 하이웨이변에 위치. 린지(Lindsay)북쪽 관광지대. $85,000+스탁
MARJ TRIPP부동산회사
☎: 1-(705) 438-3155

가정용 DRY GOODS
= 옷·신발류등 판매 =
상점면적 2,200 sq. ft. 고객은 나이 불문. 2 베드룸이 2개 있는 인컴 아파트. 발전하는 지역의 요지에 위치. 토론토의 북동쪽 50마일 심코호수변.
$89,900+스탁, ☎: 1-(705) 438-3155
MARJ TRIPP 부동산회사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 HIGH PROFIT, ●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 PREMIUM LOCATION.
●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 ASK. MR전, MR. 진 ☎: 745-5555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849-0959, 7374~6

일본식 식당과 SHOGUN라운지 매매:
일본식 식당: 85좌석, 라운지: 105좌석,
모든 시설이 완비되었으며 개업한지 3개월 되었음.
동업자나 사실분은 Correct Call로 연락바람.
HALIFAX, N. S.
☎: 집(902) 443-5789, 식당: (902) 429-6155
라운지: (902) 429-6955. MR. KIM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사정으로 급매 합니다.
주매상 $2,900, 렌트 $300,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2988 LAKESHORE BLVD. W.

매매
79년 캐디락(Fleetwo) A급.
Low Milage 4Door Full Option ☎: 759-3923

성업중인 벡커 스토아 팝니다:
1987 YONGE ST.
☎: 484-0921

급매: 개인사정으로 버라이어티 스토아를 저렴한 가격으로 팔겠음.
☎: 691-5360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일반상점 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637A BLOOR ST. W. TOR.(은하보석상 옆)
공 장: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535-0647, 465-1722 대표: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강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 미용실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트러스트
주택전문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시설및 수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6 전기시설·보수,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보수: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3118 오 현 구

자동차, 유리, 실내장치:
MOON'S AUTO TRIM & GLASS LTD.
☎: 638-0656(B), 493-7185(R) 정 해 문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535-4441 미스타 김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TV출장 수리
☎: 431-0102 MR. 박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669-5784 미스타 심

식 품 점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에서 8시까지)
●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주소: 1662 JANE ST. WESTON, ONT.
☎: 248-5131 ● 배달도 합니다.

한 국 식 품
본점: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10AM-10PM, 정기휴일: 화요일
서부: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10AM-10PM, 정기휴일: 화요일
동부: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9AM-10PM, 목 금 토: 9AM~12PM
정기휴일: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743-8270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222-4662 김 수 웅

약 국

SUPER×DRUGS
☎: 368-2746
조 남 오

돈 밀 약 국
☎: 429-4117
이 요 한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에어콘·히팅·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749-3178 김 지 환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221-5441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 (R)651-9324
자동차 수리 일체: (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749-9749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주소: 364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595 KEELE ST. TOR. ☎: 762-3247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샾: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회계및 세금조정 ● 현 CA Office 근무중
● Book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 Income Tax Preparation ☎: 239-6802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273-7300

한 방 원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아침10시~저녁8시 (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247-9347 한의사: 김 장 석 (왕진함)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536-7875

가나안 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꽃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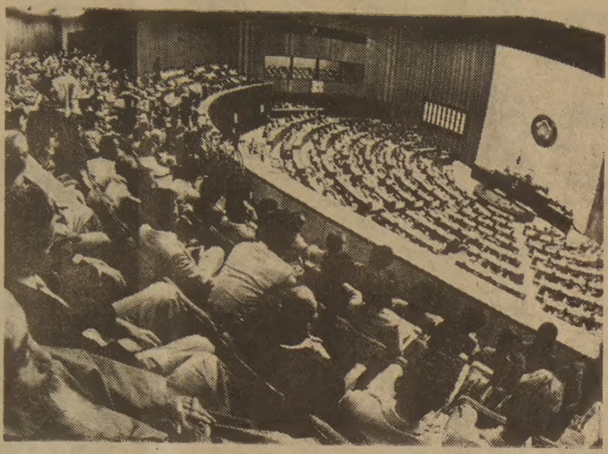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622-8516(B), 279-8719(R) 허소피아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28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085 남파·김

안내광고 다른 면에 계속

"改革立法 改廢시기 아니다"

南總理 국회답변 拘束者사면 앞으로 계속



◇정기국회의 對政府질문첫날인 6일하오 본회의가 진행되는동안 2층방청석에는 지방유권자들도 많이 入場, 자신들이 뽑은 選良들의 對정부추궁에 귀를 기울였다。

南悳祐국무총리는 6일 하오『改革立法은입법의원들이 법을 만들때 민주주의의 원칙을한국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하는데대해 지혜를 모아서 마련한 것이며 현재이를 집행중』이라고말하고『이런 法들은 앞으로 운영을 통해 잘잘못을 구별해야 하는데 시행1년도 되지않은 현싯점에서 改廢를논의하는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말했다。

南총리는 이날하오 국회本會議에서 일부 改革立法의개정을 주장한 의원들의 對정부질문에대해 이같이 밝히고『사람이 만든법이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실수가있을수도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있을수도있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현실에 적용시키나가면서 대화를 통해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것이 좋다』고 말했다。

南총리는 정치활동규제자 解禁에대해『정치활동규제법은 건전한 정치풍토를 마련키위해 부정 부패를 추방해야한다는 국민여망에 의해 마련된 법』이라고 전제、『이들의 解禁문제에 대해선 2개월전 대통령이 頒海에서 밝힌바와같이 改悛의정이 있고自肅하는 자에 대해 개별적인 심사로 적절한 시기에 구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지방재정상태는 앞으로 수요에 비추어 재정지원폭을 넓히는 방향으로검토하겠다』고 밝혔다。

南총리는 또 汎국민적 정신교육을 위해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민정신교육 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있다고 밝히고 지방자치제실시를 위해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무적인 연구를 하고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南총리는 또 구속자 赦免에 대해『그동안 몇차례 대대적인 赦免이 있었고 앞으로도 사면이 있을것』이라면서『과거를 반성하고 새사대에 동참하려는 사람에게새로운삶의 기회를 주기위해사면을 전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南총리는『지방자치제실시는 財政自立度와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再定立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충분한사전연구가 先行되어야하며 이에따라 80년대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밝혔다。

赦免·復權者 復職대책있나
通禁 解除지역 擴大용의는
議員질문

對政府질문첫날인 이날 政治外交安保에 관한 질문에는 金判述(民韓)·朴潤鍾(民正) 林德圭(국민) 李圭正의원(議同)등이 나서 國會法등 立法會議에서 제정개정된 일부 법률의 개정과 정치활동규제자의 解禁등을 요구하고▲대통령선거제도의 개선 ▲정부기구축소의 문젯점 ▲행정구역개편의 방향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한 8·3조치의 해제 ▲通禁해제지역擴大 등에 관해 물었다。

이들 의원은 또▲새시대改革의 실현을위한 국민단합과 공동참여를위한 새시대의 價値觀과 시대정신은 무엇이며 일대 정신개혁운동의 필요성은 없는가 ▲지난날 정치적 사회적 혼란속에서 각종 사태와 관련되었다가 赦免復權된 인사에 대한 復職고려▲못자리사건 관련의원을 검찰에서 조사한 이유등을 물었다。

이들의원은 이밖에 외교문제에대해▲올림픽유치를 계기로 유엔의 한국문제自動上程과 동시加入추진용의▲60억달러의 借款先을 日本아닌 다른나라로 바꿀용의가 없느냐고묻고 非同盟國과의 관계강화방안등에대해 추궁했다。

周永福국방장관은 일본순시선의 獨島부근 領海침범에 관해『일본측이 다시 도발할 때는 추방하거나 나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美、對韓公約을 재확인

盧외무·헤이그會談 서울 올림픽誘致 축하

【워싱턴5日=聯】盧信永외무장관은 5일상오 워싱턴에서 알렉산더·헤이그 미국무장관과 회담하고 한반도정세를 비롯한 상호관심사를 논의했다。

盧장관과 헤이그장관은 약 1시간동안 계속된 이회담에서 주로 아시아지역 특히 한반도의 현정세와 한국의 당면 경제문제에 관해 의견을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무성은 이 회담과 관련된 짤막한 성명을 발표하고 헤이그장관이 미국의 對韓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무성성명은 이어 헤이그장관과 盧장관이 지극히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극히양호한 상태의 韓美관계를 검토했으며 특히 헤이그장관은 서울이 오는88년 올림픽개최지로 선정된데대해 축하의뜻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盧장관은 이날 회담의 토의내용을 밝히기를거부하고 웃음으로 기자질문을 피했다。

盧장관은 이날 헤이그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경제협력차관을 둘러싸고빚어진 한일간의 마찰을 외교적으로 해결할수있도록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으며 또한 바그다드에서 열리는 제3세계외상회담에 대처할 전략문제를 협의했을것으로추측되고있으나 사실여부는확인되지않고있다。

11월 韓日會談 貿易逆調 논의

【東京5日UPI=聯】韓日양국관리들은 오는 11월 東京에서 2백억달러에 달하고있는 한국의 對日무역역조에 관한 회담을 개최할예정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5일 보도했다。

한국의 對日무역적자 2백억달러는 지난15년간에 걸쳐 누적된 것으로 이 중에는 금년1~9월사이의 적자 20억달러도 포함돼 있다。

◇盧信永외무장관이 5일 美국무성에서 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과 만나고있다。【워싱턴5日AP電送=聯合】

頂上會談앞서 外相회담 희망

"日 對韓經協 早期타결方案있을것"

소노다、한국記者團과 회견

【東京6日=金勝雄특파원】소노다·스나오(園田直)일본외상은 6일『韓日양국頂上회담은 양국간의 새로운관계확립을 위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정상회담의 원만한 개최를 위해 이에앞서 양국 외상회담의 개최가 필요하며 그시기는 외교채널을 통해 처리해나갈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소노다외상은 이날낮 外務省에서 訪日중인 한국 외무부 출입기자들과의 회견을통해 이같이 말하고『일본은세계의 평화를 위해 군사력 측면에서는 공헌을 못하지만경제협력을 통한 寄與는 계속강화해나가겠으며 韓日간에는상호 어려운 상황이 있으나 善隣友好라는 진정한 관계에서 솔직한 대화를 통해협의해나가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해나갈수 있을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1시간10분간 계속된회견에서 소노다외상은 韓日간의 경제협력문제와 관련、일본으로서는 한시라도 빨리이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전제하면서『일본의 평화헌법국회협의、그리고 한국의 명분등 상호입장의 차이는있으나 서로의 이해를 통해 협력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하고『한국이 필요한 金額과일본정부의 재정능력간에는 간격이크지만 정부、민간등 여러수준에서 협의해 나가면 金額문제도 해결의 길이 있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양국민간의 마음과마음을 묶는 문제는 정부차원에서는 해결할수 없는일임을 강조하고『양국 국민간의이해와 화합을위해 양국간의 높은 수준의 文化교류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노다외상은 특히 일본문화는 한국의 문화가 최고절정에 달했을 무렵에 영향을 받은것이라고 밝히고『양국국민간의 마음과 마음을 메워나가기 위해서는 두나라간의 문화를 상호 교환하는것이 첩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젊은세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아울러 강조、『두나라정부 모두가서로 주의해서 젊은 세대의교육을 맡아 나가야한다』고말했다。

소노다외상은 일본의 對北韓관계에 대해『일본의 對北韓관계는 旣存정책에서 조금도 변함이없으며 지금까지견지해오던 정책을 바꿀경우 한국과 미국에 事前협의하겠다』고 재확인하고『對北韓교류는 민간차원·문화교류에만 그칠것』이라고 말했다。

"南北韓긴장완화 具體案있다

全대통령 最高책임자가 직접만나야"

◇全대통령

全斗煥 대통령은 6일南北韓긴장완화문제에 대해『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안이있으나 지금 그 내용을 공개할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결국 문제는 南北韓양측의 최고책임자가 서로직접만나 얘기를 시작하는일이 긴장완화의 첫출발점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청와대에서 創刊35주년을맞은 京鄕新聞과 가진 회견을통해이같이 말하고『北韓당국이 진정으로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원한다면 결국 그들도 우리의 南北대화정책의 길을 택할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전망했다。

全대통령은 韓日관계에 언급、『韓日관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부와 정부간의관계 또는 정치인과 정치인간의 관계라기보다 두나라국민의 대다수가 폭넓게 서로이해하고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友情을 느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나는 80년대에 두나라사이에 이같은 관계가 반드시 형성될수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또 소련과 中共과의 관계정립문제에 관해『소련이나 中共또는 기타공산국가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입장과 北韓과의 관계가 있기때문에 우리의 門戶개방정책에 즉각 호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할수있다』고밝히고『이문제에 있어서도 世界史의 흐름이 중요한것』이라고 말했다。

프렘 泰國首相 내달8일 訪韓

◇프렘泰首相

프렘·틴술라논다 泰國수상이 오는11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동안 南悳祐국무총리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고 외무부가 6일 발표했다。

프렘수상은 訪韓기간중 全斗煥 대통령을 예방하며 南총리와 韓泰총리회담을 갖고 양국관계강화、특히 通商및 投資增進방안과 공동관심사를 협의할 예정이다。

프렘수상의 이번 訪韓에는 시티외무장관、솜마이재무장관、추안상무장관、솜디수상실장관등 21명이 공식수행한다。 프렘수상은 특히 訪韓중 새마을연수원과 새마을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며 수행하는 재무、상무장관、국가경제사회개발원장은 한국의 관계장관과 별도의 회담을갖고 양국간의 협력증진을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88年 서울올림픽 北京放送서 보도

【서울=聯】中共의 北京방송은 4일 오는88년 하계올림픽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된사실을 보도했다。

韓·印尼 下旬착수 마두라 油田 탐사

【자카르타5日OPECNA=聯】인도네시아 국영석유공사(페르타미나)가 이달하순 한국개발공사(KODECO)와 함께 마두라섬서부 대륙붕에 대한 석유탐사작업을 시작한다。

이 석유탐사계획은 페르타미나社와 한국개발공사가 50대50의 비율로 공동투자、향후 30년간 마두라지역의 석유자원을 공동개발하기로 한 협정에 따른 것이다。

국가負債 10兆원

借入金등 작년比·42·7%늘어

국가가 안고있는 負債가10조원을 넘고있다。 6일 재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80년결산관련자료에 따르면 작년말현재 國가負債는▲차입금1조3천7백40억원▲國債잔액 1조5천9백55억원▲國庫채무부담행위6천4백44억원▲정부借款3조8천3백88억원등 모두7조4천5백27억원에 이르러 79년 결산때보다 42·7%가 늘어났다。 정부보증채무를합친 국가채무총계는 작년말현재 9조8천3백45억원에달해 올해 일반회계예산상의 주요적자요인 5천8백억원(본예산의 韓銀借入4천5백억원、追更의세권발행1천3백억원)만 합치더라도 올해말에는 10조원을 넘어서게됐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크게늘어나고 있는것은 예산자체가 韓銀借入등 만성적인적자요인을 안고있는데다가 예산보다 세금이많이 걷혔다해도이를 借入金상환에 쓰기보다는 追更을 편성、새로운 歲出재원으로 써왔기때문이다。

주요都市 電力관리 自動化

停電단축 良·質供給위해 85年까지

韓電은 보다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기위해 서울·釜山·大邱·光州등 주요도시의 전력관리를 오는85년까지 자동화할 계획이다。

6일 韓電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강북지역 50%만이 가동되고 있는 집중자동제어시스템인 스캐다(SCADA)를 총예산 25억6천만원을 들여 강북의 나머지지역과 강남지역등 전역에 오는 83년3월까지 설치하고 釜山·大邱·光州등 주요도시에 확대、전력관리체계를 자동화하여 운영키로했다。

서울강북지역은 금년12월부터 내년8월까지 王十里변전소외에 20개 변전소를、그리고 강남지역은 오는83년3월까지 永登浦변전소외 7개변전에 자동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二重課稅 방지協定 韓國·뉴질랜드

韓·뉴질랜드間의 二重課稅방지협정이 6일상오 외무부에서 金東輝외무차관과 訪韓중인 톨보이즈 뉴질랜드外相겸 通商相사이에 서명됐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社會漫評

「物證찾기」훈련중…

地平線

올해 노벨 평화상후보로는 폴란드 자유노조 지도자 레흐·바웬사가 가장 유력하다고 外信이 전하고있다。 바웬사 말고도 지미·카터 前미국 대통령및 2명의 南阿共和國인권운동가인데스몬드·투투(聖公會주교)와 헬렌·서스먼국회의원)이 물망에 오르고있지만 수수께끼같은 바웬사의 인기의정체는 무엇일까。▼전세계 매스컴의 총아인 바웬사는 여섯아이의 아버지이고 39살밖에 안된다。 폴란드의 열풍이 일기전인 14개월전만해도 바웬사는 직업학교출신의 실직한 전기공에 불과했다。 작달막한 키에 콧수염을 기른 바웬사는 강경파를누르고 52%의 지지표를 얻어 임기 2년의 폴란드 자유노조전국위원장에 재선됨으로써 전세계의 눈길을 다시한번 모았는데 『대화에 의한 개혁』이 그의슬로건이다。 지난해 바웬사는 노조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할 뜻이 전혀 없다고 말한 일이 있었다。 폴란드자유노조는 산업별이 아니고 지역별이며、지방노조가 전국적으로 유대를 맺고 있기때문에 그본부를 솔리다르노스크(紐帶)라고 부른다。 노조권력은 분산되어 있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기싫어 노조지도자를 오래 맡을 생각은 없다는 것이 그의 신조였다。 한때 노조위원장에 추천된것을 보면 폴란드의현 [illegible]기가 그의용퇴를 인정해주지않았는지 모른다。▼태풍의 눈인 그다니스크에서 자유노조는 생선 과일등 식품 가격인상및 담배값 1백% 인상을 즉각철회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노동자를위한 사회주의 체제하의 폴란드에서 특권층만 고기를 별도로 살수 있는 코미사르숍(특별 가격점)、달러숍은 마땅히 폐지돼야하고、당원만 경제적으로 우대하는 새로운계급 출현에도 반대하고 나선것이 자유노조운동이다。 추운 겨울하늘에 몇시간씩 행렬을 지어야 고기몇g을 살수있는 것이 폴란드경제 이기때문에 폴란드 자유노조의 공격대상이 우선 정치보다 경제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것이다。▼10년동안에 파업을 세번하는동안 바웬사는 당국에 백번은 연행됐다고 한다。 평범한 가톨릭신자인 바웬사의생활은 극히 검소했다。 양복네벌、냉장고는 아이들이 많아 두개、전엔 20평방미터의 아파트(전용면적)에서 살았기때문에 한눈에 마누라가아이들을 돌볼수있었는데 요즘은 방이 여섯개나되는 80평방미터짜리에 살기때문에 마누라가 아이들을 제대로 봐줄수없다고 농담하는것이 바웬사다。 不死鳥의사나이 바웬사의 자유노조운동에 세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이때 놀라운 일을하고있는 그에게 노벨평화상의영광이 안겨질 것같다는 소식은 듣기에도 반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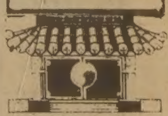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32
은 : 온스당 US 9.3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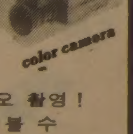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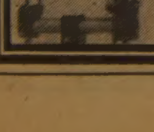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사 진
• commercial photography
기업의 성공은 적절한 광고로부터!
백마디 말보다 한장의 사진을!
(무료상담, 당분간 특별할인)
• home, office wall decors
쓸쓸한 벽을 아늑하게 장식하는
대소형 액자및 MURAL등 장식용
작품사진(위탁판매점 모집)
• wedding coverage
특수 효과를 살린 창의력
넘치는 사진을 캐나다
최대의 전문 LAB에
현상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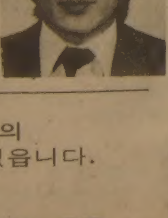
color camera

• VIDEO service
칼라TV로 볼 수 있는 비데오 촬영!
비데오가 없으신 분도 빌려 볼 수
있읍니다. (단체행사및 결혼, 회갑, 돌등 가족행사)
(구 David's Photography)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 한 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토론토 한인 연합교회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의 저녁
지 휘 : 박 재 훈
반 주 : 박 순 혜
합 창 : 본 교 회 성 가 대
일 시 : 1981년10월18일(주일)
오후5시30분
장 소 : 본교회 대 예배실
300 BLOOR ST. W.
전 화 : 925-6261
토론토 한인
연합교회

제3회 신춘문에 현상모집
이민생활의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날이 짙어짐은 모국어에의 애착과 그 전통문화및 예술에의 향수입니다.
이에 이민사회에 한국문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코자 숨은 문재의 발굴을 꾀하여 다섯번째 현상문에 모집을 실시하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시(시조포함) : 편수 제한없음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30~60매
수 필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평 론 : 테마 자유 · 200자 원고지 40매 이내
희 곡 : 200자 원고지 60~120매
아동문학 : 동화(200자 30매 이내)
동시(동요·동화시 포함)편수제한 없음.
마 감 : 1981년 12월15일
제 출 처 : 캐나다한국문인협회
Korean Canadian PEN Club
5 Massey Square #2008
Toronto, Ont. M4C 5L6
발 표 : 1982년 1월1일
시 상 : 각부분 당선작 1, 가작 1.
심 사 : 문인협회 심사위원회
※응모작품에는 각편마다 반드시 이름(본명)·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를 적을 것.(필명이나 가명은 무효)
주최
캐나다한국문인협회

警報機판매法案 上院표결 앞두고

레이건、超黨공동宣言文발표

"對사우디 販賣거부할 경우 美外交政策수행에 打擊커"

歷代행정부官僚 오찬이어 上院議員도 초청

◇前閣僚들과 國事의논하는 레이건 레이건美대통령이 5일 헨리·키신저前국무장관, 해럴드·브라운前국방장관과 함께 백악관의 오찬장소로걸어가면서 얘기를 나누고있다。이날 오찬에서는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의 對사우디판매안이 擧論됐다。 【워싱턴 6日UPI電送=聯合】

【워싱턴5日AP=聯合】로널드·레이건 미 대통령은 5일 헨리·키신저 전국무장관등 6개전행정부의 고위외교안보정책관리13명의 초당적지지아래 이들과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85억달러상당의 미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의 對사우디 판매계획이 거부된다면『광범한 문제에걸친 미외교정책을 저해할것』이라고 경고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AWACS판매법안의 상원외교위부표를 앞두고 이날 키신저 前장관, 즈비그네프·브레진스키 카터前 행정부안보보좌관, 해럴드·브라운 前국방장관, 고든·그레이 前 아이젠하워 행정부안보보좌관등 歷代6개 행정부의 고위안보외교군사정책관리13명을 백악관으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등 AWACS의 對사우디 판매계획을 관철하기위한 적극 로비공세를 시작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TV회견에서 직접낭독한 이선언문은『사우디에 대한 AWACS 및 기타방공장비판매가 세계주요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이익에 상당한 기여를 할것』이라고 말하고『의회가 판매를 거부한다면 페르시아만지역뿐아니라 광범한 여러문제에 걸친 효과적이고 신뢰할만한 미외교정책수행능력에 손상을 줄것』이라고지적했다.

래리·스피크스 백악관부대변인은 레이건 대통령의전 행정부 고위관리 초청이 의회의 완강한 거부에 직면한 對사우디 무기판매에 대한『歷代행정부의 강력한 초당적지지를 과시』하려는 것이라고설명했다.

【워싱턴6日UPI=聯合】5일 전 대통령및 국무국방관리등으로부터 조기공중경보통제기(AWACS)의 對사우디아라비아판매에 대한 초당적지지를 얻은 레이건 미 대통령은 6일 그여세를 몰아 53명의 공화당소속 상원의원들을 백악관에 초청, 본격적인 對상원설득작업에 나섰다.

한편 美하원외교위는 이날 AWACS의 對사우디 판매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것으로 보이며 하원은 오는13일 이반대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이건 행정부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있는 하원에서 AWACS의 對사우디판매지지를 얻어내기는 거의불가능하다고 판단, 對하원설득작업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공화당이 지배하고있는 상원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레이건 대통령이 공화당소속 상원의원전원을 백악관에 초치한것은 전직고위관리 13명을 백악관오찬에 초대, 초당적지지를 얻어낸지 하룻만에 나온것으로 레이건 대통령에 이어 카터 전 대통령에게도 지지를 요청할것으로 알려졌다.

核軍취약성 補完미흡

美議會·合參일부 戰略核증강계획 批判

【워싱턴5日AP·UPI=聯合】美의회와 합참의 일부 지도자들은 5일 레이건행정부의 전략핵전력증강계획에 제시된 MX미사일의 배치 방법등과 관련, 행정부지도자들과 심한견해차이를 드러내보였다.

로버트·버드 민주당 상원원내총무는 이날 개막된 美상원군사위청문회에서 MX미사일을 기존 타이탄미사일등의 지하격납고에 배치하기로한 레이건 대통령의 결정은『美核軍이 안고있는『취약성의 창문』을 닫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할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캐스퍼·와인버거국방장관을 수행하여 청문회에 참석한 합참의장 데이비드·존스공군대장도 연설을 통해 핵미사일의『생존능력』을 증대시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이 미사일들의 배치방법을 이동식으로 하는것뿐이라고 역설함으로써 레이건 대통령의 전략핵전력계획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버드의원은 또 B1폭격기 및 MX미사일생산계획이 정치적동기에의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공격하면서 특히 B1폭격기생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중고차에 돈을쏟아넣는것과 다름없다』고 비꼬았다.

파키스탄哨所공격

아프간、미그機2臺로 두차례

【이슬라마바드5日AP=聯合】파키스탄정부는 5일 아프가니스탄의 미그전투기들이 파키스탄 서남부국경지대의 한 초소를 두차례에 걸쳐 공격했다고 주장, 이에 대한 공식항의를 아프간정부에 전달했다.

파키스탄정부의 한 대변인은 정부가 이날 이슬라마바드주재 아프간대리대사를 외무성으로 소환, 아프간전투기의 파키스탄초소공격에 대한 항의각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올림픽 <3>

東京올림픽의 教訓

戰後위신 回復도모…30億弗 투자

호텔등 過剩시설 活用못해 골치

『1964년 東京올림픽이 열릴때만해도 일본사람가운데는 많은 사람이 반대했읍니다』

시바다(柴田) 일본올림픽위원회(JOC) 위원장은 東京올림픽개최가 그당시로서는 무모한일이었으며 조직운영도 큰문제의하나였다고 술회했다.

사실 東京의 교통은 러시아워때는 간선도로의 전차를 타기 어려웠고 메인스타디움하나도 제대로된것이 없었다.

이께다(池田) 내각때 부터 고도성장정책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국가예산도 어려운형편이었다. 이께다내각은 패전의 실의를 일깨우고 국민의 에너지를 한군데 집중시키기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東京올림픽에 투입한돈이 무려 30억달러에 이르러 막대한부채로 재정적자는 더욱늘어났다. 일본국민가운데는『올림픽이 다 뭐냐, 무리한일은 하지말자』『교통지옥도 해결하지못한채 어떻게올림픽을 열려는 것이냐』는 반론에이어 東京올림픽을 반납하자는 성급한 주장까지 나왔다.

국립경기장등 14개의 경기장에 투입한 금액이 1백64억円에이르렀고 하루 10만명이상의 올림픽관람자를 수송하기위한 도로교통망의 정비에 7백52억円, 지하철확충비 1천9백억円, 상·하수도정비 7백30억円에 이르렀고 그밖에 올림픽간접시설 투자인 東海道新幹線에 3천8백억円이 투입되어 자그마치 1조8백억円의 돈이 들었다.

15일동안의 올림픽제전을 위해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예가 없었다. 돈이 너무 든다는 비판과 함께 올림픽이 끝난뒤에는 막대한 시설이 남아 東京에 편중되어 남아돌아가는 잘못을 남겼다.

東京올림픽을 열기위해 그렇게 막대한 경비를 쓸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일본체육계인사들은 의문을 갖는다. 사실 올림픽에 투자된 직접비용은 3백억円에 불과했고 경제단체로부터 갹출된 기부금48억円, 입장권 수입17억円, 방송권수입5억円, 선수촌사용료5억円등 90억円이 수입으로 들어와 순수한 경비는 2백10억밖에 들지않았다. 말하자면 東京올림픽을위한 시설투자와 함께 東京올림픽을 극대화시킨간접비가 더많은것을 차지하고있는것으로 허세를위한 낭비가많았다고 시바다위원장은 지적하고 한국은 이미 시설이 70%이상 갖추어져 있기때문에 많은 경비를 절감하여 짭짤한 올림픽개최를 할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본은 東京올림픽에대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극대화시킨원인이 패전일본의 위신을 회복키위한 정치적인 것이 많았다고 일본체육계 인사들은 지적했다.

전쟁과 패전을거쳐 일본스포츠계가 東京올림픽을 유치했을때 일본국민들은 한덩어리가 되어 추진했다. 일본은 1912년 스톡홀름에서열린 제5회 올림픽대회에 처음으로 2명의 선수를참가시킨이래 32년 로스앤젤레스대회에서는 마술과 수영및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땄다. 국제스포츠에 자신을 가진 일본은 40년 제12회 대회의 개최권을 획득했으나 중국침략전쟁으로 반납할수밖에 없었고 제2차대전의 패전과함께국제올림픽에설자리를 찾지못했다. 그러던 일본이 64년 東京올림픽의 개최지로 결정되자 일본 매스컴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 국민을 열광케했으며 최고의 격식과 권위를 가진 IOC에의해 일본의 국제적지위가 인정됐다고논평하고 東京올림픽의 극대화에부채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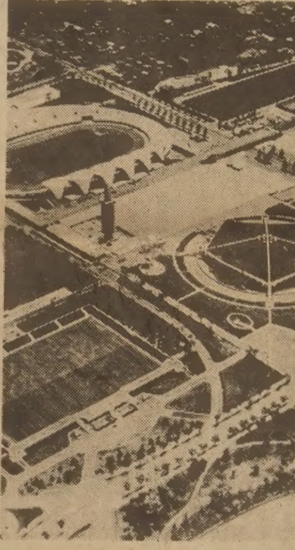
일본이 아세아의 지도국으로 인정된것처럼 떠들어댄 것이다. 일본의 체육계 관계자들은 이런 여론의 분위기속에서 9천5백만 일본국민이 한덩어리가되어 東京올림픽을 추진, 새로운 평화국가로 탄생한것을 알리는데 급급했다. 그래서 돈은 여하간에 이목적달성을위해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일본정부는 이 최대의 스포츠제전을 위한 경비를 얼마든지 지출키로 결정했다.

그당시 일본국민들이 얼마나 東京올림픽에 열광했는가를 알리는 예로서 개회식입장권 6만매가 하루사이에 다팔렸고 구입신청자는 3백50만명에 이르러 공개추첨으로 구입자를 선정했다.

투자가 든만큼 東京의 면모도 일신하여 세계국제도시로서의 현형태를 갖추게됐다. 首都고속도로를 비롯하여 환상도로와 상수도·교량등 교통시설이 정비되고 호텔등 관광시설이 확충되어 東京의 도시개발 10개년계획은 4년만에 완수됐다.

물론 좋은 면으로는 東京시민과 일본국민들이 도시의 개선과 미화작업에 즐거이 협력하여 일본문화의 전통을 외국 손님에게 보이기위한 열의가 높아졌다. 스포츠에의 애정이나 세계국민의 호스트가 됐다는 자부심과 일본문화를 세계에 알리려는 의욕에 넘쳤다.

그러나 올림픽을 계기로한 상업주의의 횡행과 높아진 소비성향을 비롯해 내린수가 없고 국제화된 도시와 산업사회에서 오는 병폐를 한층 높게 유발시켰다.



◇당시 東京에 세워진 고마자와(駒澤) 올림픽 競技場。

10만명이상 수용될수있는 국립경기장과 수영장의 시설은 세계정상을 달리는 훌륭한 시설을 갖췄으나 올림픽이 끝난뒤의 활용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특히 올림픽시설이 東京에 편중됨으로써 문화시설의 지방분산이라는 정책에 역행했다고 이소무라(磯村) 도시문제전문가(都立大교수)는 지적했다.

더욱 문제되는것은 호텔의 과잉시설투자다. 휘황찬란한 전망대와 수천개의 크리스탈로 장식된 샹들리에, 7개국어가 동시에 통역될수있는 대회장이들어선 호텔들이 90여개나 건립됐으나 올림픽이 끝난뒤에는 별로 재미를 보지못하는 유휴시설로 남은 관광호텔들이 생겨났다.

일본 체육계관계자들은 東京올림픽을 추진, 운영하는데있어서 가장큰 애로사항은 15만명이 넘는 올림픽 참관자들이 한꺼번에 한장소에 모이고 집에 안전히 돌아갈수있도록 하는 교통대책의 문제와 풍속과 언어가다른 6천5백명의 선수단과 임원들을 불편없이 안전히 지낼수 있도록 하는가의 문제였다.

開催權따자 亞洲指導國자처

東京올림픽과같은 큰규모의 국제대회를 열지못한 일본으로서는 모든문제하나하나가 새롭고 어려운 문제였다.

개회식만 예로들더라도 9만7천명의 참관자와 개회식장 주변明治公園에 운집한 4만명의 관람자에대한 수송대책, 또 東京올림픽조직위원회가 직접 수송해야할 선수·임원6천5백을 태우기위한 버스와 각국귀빈의 차량만도 9천3백대가 한꺼번에 한곳에몰려들어 큰혼잡을 이루었다.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위해서는 올림픽조직위원들의 기민하고 훈련된판단과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국민각자의 질서유지에 협조하는 정신자세가 더욱긴요하다고본다.

시바다JOC위원장은 올림픽의 개최목적이 두말할것없이 모든 나라의 스포츠참여에의해 국제적 상호존중과 친선에 있는 만큼 불필요한 시설의 과대한 투자를 막고 올림픽이념과 윤리원칙에입각하여 서울올림픽개최가 훌륭히 성공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말했다.

【東京=宋孝彬특파원】

波노조 分裂相 노출

「담배戰爭」싸고 바웬사不信공세 高潮

【그다니스크(폴란드) 5日路·聯合】폴란드자유노조는 5일 그들의 담배값인상 철회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격인상을 강행하자 파업등을 포함한 대응책마련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는한편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공세에 직면하는등 이른바『담배전쟁』을 둘러싸고 한편으로는 정부당국과의 긴장,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노조 내부의 분열상을 노정했다. 이날 자유노조전국대회장에는 전국의 노동자들로부터 정부의 담배값 2배인상조치에 항의하는 전문들이 쇄도했으며 일부대의원들은 바웬사가 무정견한 지도자라고 비난했다.

바웬사는 4일 자유노조전국대회에 급파된 마리안·크르자크재상에게 담배값인상을 철회하도록 촉구했으나 정부는 5일부터 발효된 가격인상결정을 번복하기에는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노동자들의 항의는 가격인상 자체보다는 자유노조와사전협의를 거치지않은 인상결정방식에대한 분노에서 비롯된것으로 보이는데 바웬사는 이날 대의원들에게 정부가협상 의향을 밝혔다고 말하고 이는 하나의 성과라고 지적했다.

中共、대규모雙十節 행사준비

【北京5日UPI=聯合】중공은5일 臺灣과 본토를 통일시키기위한 지속적인 노력의일환으로 臺灣의 최대국경일인雙十節을 기념하기위해 중공정권수립이래 최대규모의 성대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

屈武 쌍십절 행사준비위원장은 신해혁명70주년을 맞아 펼쳐질『올해의 쌍십절행사의 규모는 과거 그 어느때보다도 대대적인 것이될것』이라고 말하고 중공정부는 금년도 쌍십절행사를위해 1년동안 준비를 해왔으며 그준비가 이제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屈武는 신해혁명50주년및60주년기념행사도 과거 北京에서 개최됐었지만 금년도의 기념행사와 비교해볼때 규모면에서 비교가 안될것이라고 말했다.

蔣총통 本土訪問 中共서 거듭提議

【北京5日AP·AFP=聯合】중공당국은 최근 蔣經國자유중국총통의 중공방문을 거듭 제의하는 한편 중공적십자사를 통해 臺灣국민들에게 본토에 사는 이산가족들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밝혔다.

중공의 지식층을 대상으로한 일간지 光明日報는 5일 蔣총통의 이번 본토방문초청이 蔣총통의 친모 마오·후메이여사(작고)의 가장 절친한 친구중 한사람인 첸·치안여사의 이름으로 된것이라고 밝히고 초청내용은 蔣총통에게 浙江省동부지방에 있는 모친의 묘를 참배해달라는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공당국은 이에앞서 근대중국의 국부 孫文의미망인인 宋慶齡의 이름으로 蔣총통의 중공방문을 초청한바 있다.

◇포스터속의 레이건과 브레즈네프 美하바드大 경영大學生인 존·프로이드군㊧과 데이빗·포리건이 레이건美대통령이 브레즈네프蘇聯공산당서기장의 멱살을거머쥔영화속에 있을 법한 자신들의 상상도를 그려넣어 포스터를 처음제작, 한달당 4달러씩지금까지약 8만5천부를 팔아왔다。【케임브리지(매사추세츠州) 5日AP·聯合】

外信알레나

◆教皇, 水曜週例接見再開 요한·바오로2세 가톨릭교황은 지난5월13일 聖베드로광장에서 있었던 자신에 대한 교황암살미수사건이후 중단됐던 주례일반접견을 오는 7일부터 재개할것이라고 5일 교황청이 발표했다. 【바티칸시티=AP】

◆蘇·波副外相 회담 폴란드자유노조가 폴란드정부당국의 물가인상조치에 항의하고있는가운데 5일 방소중인 요젭·예야치 폴란드부외상은 모스크바에서 레오니드·일리이체프 소련부외상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상호관심사』를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스크바=UPI】

세계 最重量사나이 體重감량에 新記錄

【시애틀UPI=聯合】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남자로 올라있는 미국의 존·B·미노크(40)라는 사나이는 도저히 감당할수없는 체중증가와 심장질환때문에 현재 시애틀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있다고.

병원측은 미노크씨의 현재 체중을 밝히지않았으나 지난 78년당시 심장질환으로 1차입원했을때의 기록은 무려 6백35㎏이었으며 이기록은 기네스북에 정식으로 올라있다

메아리

쌀독 人心

「프라하의 봄」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 소련은 과연 체코보다 더 잘먹고 사는 나라인가… 속사정은 다르다. 체코침공 6년뒤의 통계를 보면 체코에는 한사람이 평균 1백73파운드의 쇠고기를 먹는데 소련인은 1백7파운드 밖에 섭취하지 못했다.

소련은 굶주린 경험을 통해「食品政治」의 현실을 뼈아프게 알고있는 나라다. 1차대전후 배를 쫄쫄 굶았고 1932년 강제집단농장으로인한 대혼란으로 심한 기아에 시달렸다. 2차대전중엔 독일군 도시포위작전에 막혀 숱한 아사자를 냈다.

흐루시초프는 서부시베리아 초원에 농민을 정착시키고 곡물생산을 2배로 늘렸다. 그후도 잦은 흉년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비능률적인 농업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경작지의 기후조건은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다.

금년까지 계속된 「3년흉작」이 소련의 쌀독 사정을 급박하게 한다. 작년엔 전체필요량의 20%에 해당하는 4천만톤의 식량을 사들였다. 40억달러란 거액이 소모됐다.

소련과 일부 유럽국가를 제외하면 올핸 대체로 각국이 풍년을 구가할수 있는 모양이다. 세계 전체의 생산량은 15억톤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재고량은 늘어 날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곡물가격은 떨어지거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인류의 영양실조」상태가 크게개선되지는 않는다. 여전히 4억인구가 굶주림에 면하고 있다. 미래의 식량난에 대비, 과학자들은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여왔다. 다수확품종이 개발되고 쌀의 단백질함량을 높이는 연구를 영국과 필리핀이 공동으로 진행중이라고 한다.

쌀의 단백질함량은 현재 8%정도。이 함량을 더욱 늘려「슈퍼라이스」를 생산할 야심적인 계획인것이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려 오는10월16일을 첫「세계식량의날」로 정했다. 기아와 영양실조를 물리치기 위해 국제적인 단결을 호소하려는 취지다。지금 황금들판엔 풍년이 물결친다。당초 예상했던「大豊」엔 못미치나 평년작을 넘는 약3천7백50만섬을 수확할것으로 추정된다(한국일보6일자4면)。추곡수매가가 결정된다。「쌀독」을 채우고 헌쌀을 거두는 농민의 마음은 이제 수매가에 쏠린다。「쌀독 인심」을 키워줄 적정한 인상이 뒤따라야겠다.

주식회사 황용현 부동산

새 리스팅

도넛샵 :
①주매상 $3500. 6개월된 전망 밝은지역
렌트 : $3000. 10년+10년 옵션. $90000다운
가격 : $180,000
②월순수익 $9000보장. 운영이 간단하고 시간짧음
렌트 : $1,060. 8년+10년옵션. $140,000다운
가격 : $185,000

커피샵
①5일간 영업. 7시부터 5시반까지 오픈.
주매상 : $2,500. 렌트 : $1,225. 3년+3년옵션
가격 : $75,000

버라이어티 스토아
①주매상 : $5,500. 렌트 : $750. 5년+3년
가격 : $50,000
②주매상 : $6,700. 새로꾸민 전망 밝은가게

넓은 방갈로
(던다스와 Hwy427)교통이 편리하고 벽돌로 된 단층집. 3 베드룸. 파이어 플레이스 2개. 65×170. 뒷 마당크고 잘 단장된 큰 지하실 $65,000다운. 17% 2년간 몰개지 잡아줌.
가격 : $164,900

101 DUNCAN MILL RD. SUIT404
DON MILLS, M3B 1Z3
(B) 449-8644, (H) 286-1548

DOMINION SMALLWARES

금주의 스페샬

OCT. 5th --- OCT. 17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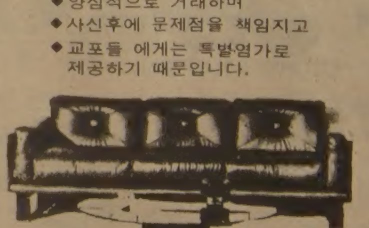
Icy chocolate	150/5¢	4.55
Halls prepack	7 boxes+10free	33.55
Hershey chocolate bar	36/40¢	8.99
Laura secord chocolate bar	36/40¢	9.29
Hubba bubba presenter	89/30¢+7free	17.13
Neilson chunks reg&peanuts	120/15¢	11.29
Bazooka gum	480/2¢	5.99
Caramilk thick bar		13.75
Cracker jack	36/40¢	9.95
Mc toffee	36/40¢	9.95
Halls prepack		33.55
Leaf ball of fire gum	48/5¢	1.45
Astro pop	36/25¢	6.29

이 기간동안 핼로인 캔디5% 더 할안해 드립니다.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920 Caledonia Rd.
약간의 세일즈맨 모집 789-7214(MR. 김).

Lawrence
Keele
Caledonia
Dufferin

교포를위한 제4주년 기념 특별세일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MODERN FURNITURE
ecosys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心證수사」15일 다시 原點으로

檢察、證據보강 再捜査지시
張군 "나는被害者…自白한일 없다"

검찰은 6일하오 상경여대생 朴尙恩양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경찰이 구속품신을 해온 張모군(22·K大3년)을 일단 「연행상태」에서 풀어 귀가 시키고 원점에서 증거를 보강하는 재수사를 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5일과 6일 이틀사이 17일간의 경찰수사기록을 검토하고 張군의 자백에 대한 임의성을 직접확인해 보는등 진통을 겪은 검찰은 우리나라 강력사건수사사상 최초로 「심증의 범인」을 일단풀고 「완벽한 증거에 의한 범인」을 요구하는 결단을 내렸다。수사경찰에겐 실망의 순간이었고 지휘검찰로서는 뼈아픈 결정이었지만 인권옹호측면과 과학수사의 차원에서는 새로운기록을 남긴순간이었다。검찰은 이날 張군을 귀가 시킨것은 張군이 「무혐의」란는 뜻에서가 아니며 張군이 진범이라는 심증이 있다면 임의수사를 계속, 물적증거로 이를 입증해 내자는 것이라고 귀가결정의 이유를 밝혔다。張군이 범인이 아닐경우 범인은 누구란말인가。경찰은 좌절속에서 사건의진상을 정확히 밝혀내야할 무거운 짐을 계속 안고있다。

檢事 단독審問후 "무고한市民 犯人만들수 없다"
青바지차림의 초췌한張군 "尚恩이죽이지않았다"

사건을 지휘해온 서울지검 東部지청 金基駿검사는 6일 하오『용의자張군(21·K대3년)이 범행을 완강히부인하고 치흔감정서등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유죄증거가없으므로 이같은 결정을 내릴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金검사는 이날『사건 수사본부장에대한 검찰의 구두수사지휘내용』을 설명으로발표、『張군이 사건당일 하오 5시20분부터 9시30분 까지 숭진 朴양과같이 있었다는사실은 인정하나 이시간후 장미아파트까지 朴양을 데려다주고 귀가했다고 주장,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고 밝혔다。

金검사는 이날 낮 12시5분부터 張군을 2시간동안 직접 심문하고 그후 3시간 동안 심문내용을 놓고 지청장과 金榮載차장검사、李洪均부장검사등과 논의한끝에 張군의 귀가조치를 결정했다。

金검사는 치흔에 대해『용의자가 검찰과 법정에서 자백할때 보강증거로는 가치가 있으나 치흔자체로는 직접증거가 될수없다』고 밝히고『張군이 애무는 했지만 깨물지는 않았다고 치흔자체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金검사는『지금 상태로는 용의자 張군에 혐의가 있다、없다고 단정할수없으며 앞으로 수사는 계속해야 될것』이라고 덧붙였다。張군을 귀가시키면서 金검사는『열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만들수없다』면서『엄연히 헌법에 무죄추정권이 있기때문에 신중하고 엄격한 증거가 없는한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15일동안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아오던 張군을 이날하오5시 귀가시켰다。

경찰에서 풀려난 張군은 이날 東部지청308호 검사실에서 아버지 張泳寬씨(48)가와 어머니 李英子씨(42)가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현재의 심정과 소감이 어떠냐』는 기자들 질문에『尙恩이를 죽이지 않았다』고만 말할뿐 눈을 감은채 입을 열지 않았다。

한편 朴양 피살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江南경찰서 郭魯明형사계장은『할말이 없다』고 말하고『張군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9월18일 집앞서 헤어졌다"

張군은 이날 하오6시께 귀가결정이 내린 서울지검 동부지청 제308호 검사실에서 부모를 기다리는동안 취재기자들과 다음과같은 대화를 나누며『자신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심경을 밝혔다。

다음은 대화 내용이다。

張군과의 일문일답

—경찰에서 왜 범행했다고 자백했나。

▲기자들이 자백했다고 했지 나는 자백않았다。

—그동안 신문을 보았나。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기자들이 자백했다고 한것을 어떻게 아느냐。

▲(잠시후) 미안하다。尙恩이를 좋아했다。

—결백하다면 명예회복을 위해 사실을 밝혀야되지 않느냐。

▲어떻게 밝힐 수 있느냐。기자들이 사진찍어 신문과방송에 보도하는것은 옳다고생각하느냐。

—어쨌든 그동안 피의자취급을 받아온것은 사실이 아니냐。

▲나는 처음부터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그럴수록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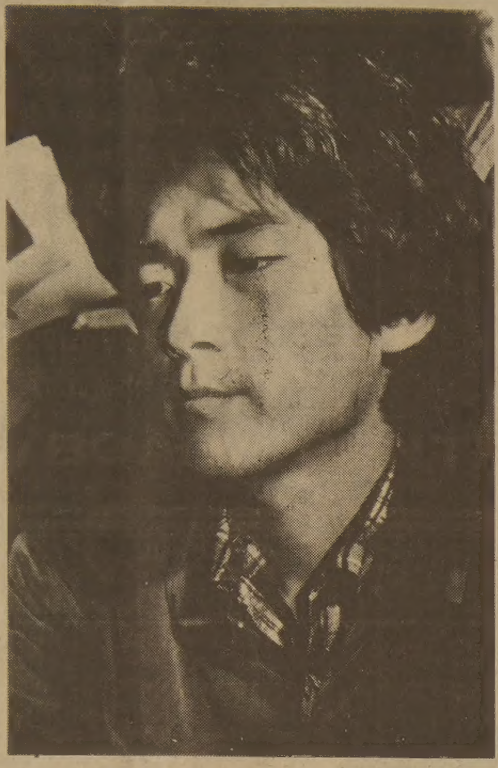
▲지금기분으로는 기자들이 적으로 생각될 뿐이다。

—朴양을 사랑했는가。

▲(대답없음)

—尙恩이를 죽이지않았다면 안죽였다는 반증을 말해 달라。

▲분명히 尙恩이는 내가죽이지않았다。지난9월18일하오9시20분 집앞에 데려다준 이후로는 만난적이없다。전화도 걸지 않았다。



◇"나는 潔白합니다" 15일간의 연행상태에서 풀려난 張慶洙군。피로한 표정으로『나는 朴양을 죽이지 않았다』고만 담담하게 말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捜査官 위법행위잦다"
서울辯護士會 성명
15일간 張군 구속상태방관

서울 통합변호사회(회장 圭光)는 6일 최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尹노파살해사건、여대생朴尙恩양피살사건등 강력사건을 수사하는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법절차를 무시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이에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위법사실이 밝혀지는대로 사직당국에 고발하거나 관계책임자의 인책을 건의하는등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동회는 이와함께 경찰의감독기관인 검찰총장에게 이에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제도적인 문제점이 밝혀지면 정부당국에 이의 보완을 요구키로했다。

李炳勇변호사는『경찰이 15일씩이나 합법적절차없이 張군을 사실상의 구속상태에 둔것을 검찰이 방관한책임도 크다고본다』면서『다만검찰이 뒤늦게나마올바른 결정을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번용단을 검찰이 지향하고있는 검찰민주화의한징표로 보고싶다』고 말했다。

金東正변호사도『종전예로 보아 검찰은 일단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했던만큼 검찰의 이번결정은 의미하는바가 크다』고전제、『앞으로 검찰수사원칙에 큰변화가 오는 계기가 될것이다』고 말했다。

金변호사는 이어『형사소송법상 보호유치나 임의동행등의 규정이 없는데도 이번에 張군이 15일씩이나 불법감금상태에 있었던것처럼 종래의 강력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돼온게 사실』이라고 지적、『이번일을 계기로 이러한 불법감금이 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308號檢事室 긴박의24時

拘束품신서 歸家결정까지

검찰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5일과 6일 이틀동안 수사본부와 서울지검 東部지청은 초조와 긴장속에 유례없는진통을겪었다。

金검사 새벽出勤 곧회의 張군도착 기다려
낮 12시5분부터 外部차단 單獨신문「對座」
사진촬영 禁止·진술用녹음기 3臺도 준비

5일 하오6시간이 넘는심야숙의끝에 영장신청을 유보하고 귀가했던 담당 金基駿검사가 6일 지청에 출근한 것은 아침6시30분 평소보다 2시간30분이나 빠른 시각이었다。金검사는 자가방에 틀어박혀 경찰의수사기록을 다시 들췄다。

간밤에도 통독한 기록들이었으나 맑은 정신으로 면밀히 재검토 했다。

이어 8시45분께 지청장실로 기록을들고 들어가 金宙漢지청장、金榮載차장、李洪均1부장과 10시35분까지 회의를가졌다。

金검사는 회의직후 짤막한 기자회견을 가졌다。『張군을 검사가 직접 심문해서 경찰자백의 임의성을 확인한후 구속여부를 결정 하겠다』는게 그의 발표의 전부였다。

金검사는 기자들의 보충질문에『경찰이 작성한 기록을 검토한뒤 검사가 경찰의 입회없이 직접 용의자를 만나 경찰에서의 자백이 진실한것인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또『치흔만으로는 간접증거(보강증거)가될뿐이며 張군이 검사앞에서 진술하는경우 그진술의 증거력인정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달렸다。그러나 경찰의 조사는 법정에서번복될때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흔만으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수없으며 張군자백의 진실성여부가 구속영장신청여부에 결정적인 자료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상오 11시52분 용의자張군이 東部지청에 도착했다。張군은 지청소속 서울2라7176호 검정색 마크Ⅵ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있었고 앞과 좌우에 수사관들의 감시를 받고있었다。

張군이 도착하자 308호 검사실은 갑자기 경비가 강화되고 기자들의 접근이 봉쇄됐다。

張군은 녹두색 빌로드 천으로된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사건당일 신었던 밤색랜드로버를 신고 머리는 헝클어진채 초췌한 모습이었다。

張군은 차에서 내리면서허리가 불편한듯 왼쪽허리에손을 얹고 부축없이 3층308호실까지 걸어갔다。

큰키에 미남형인 張군이 308호실에 들어간후 외부와 차단됐다。

이동안 張군에대한 사진촬영은 지청측의 요청으로금지됐다。

검찰이 張군에대한 직접심문을 개시한 것은 낮 12시5분。

金검사는 江南경찰서 郭魯明형사계장과 화장실까지 동행하며 귀엣말을나눈뒤 자기방에들어가 곧장 심문에들어갔다。

이날 심문에는 사전에 소형녹음기1대가 준비돼 있었으나 심문이길어진탓인지 대형녹음기、중형녹음기등 3개의 녹음기가 보충됐다。

검사의 심문결과를 기다리며 복도에서 서성대던 江南경찰서 郭형사계장은『소신 그대로다』며 기자들에게 애써 태연해했다。

하오2시14분、金검사는 심문을 끝냈다。張군의 진술을 담은 녹음기를 들고 金宙漢지청장실로 직행、金榮載차장검사、李洪均제1부장검사등이 참석한가운데 다시 회의에 들어갔다。

3시17분 金검사는 다소 굳은표정으로 지청장실을 나왔다。

그는『왜 발표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지청장이 곧 발표할것이다』고 짧게 말한뒤 張군이있는 308호실로 올라갔다。

臨津閣서 重陽節 망향제
北韓출신 反共청년 2천여명모여

북한출신반공애국청년2천여명은 6일 낮12시 경기도 坡州郡汶山邑 臨津閣 광장에서 重陽節망향제를 가졌다。

대한반공청년회 주최로 열린 망향제는 육군○○사단 군악대의 주악으로 시작、국민의례와 분향、상향배、망향사、全斗煥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리고 북괴 金日成에게 보내는 경고문 채택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최측을 대표한 韓銀松회장은 식사를 통해『88년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을 가로막은 철문을 활짝 열수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고『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주적 힘으로 우리의 소원인 반공통일이 성취될때까지 전국민이 일치단결하여총력을 경주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張군이 검찰의 심문을 받는동안 검찰청에나와 초조하게서있는 어머니 李英子씨(42)와 수사본부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張泳寬씨。

흐느끼는 父情 "나는믿었다 내아들을"
張군집 친척등 몰려 부둥켜안고 눈물
어머니 "眞犯빨리잡게 부처님께빌었다"

이날 江南區 일원洞 한신공영5차아파트 111동901호 張군의 집에서는 가족 친척 친지들이 張군이 귀가하자 앞을 다투어 張군을 부둥켜 안았다。

어머니 李英子씨(42)는『하늘이 두쪽나더라도 우리아들은 죄가없다고 믿었다』며 수척해진 張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흐느꼈다。

어머니 李씨는 이날 낮12시께 아들이 검찰에 갔다는 소식을 전해듣고『오늘만은 아들의 얼굴을 봐야겠다』며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서울지검 東部지청으로 달려가 청사앞 잔디밭에 앉아 초조히 기다리다 검찰의 결정이 늦어지자 하오3시께 뒤따라온 친지의 설득으로 집에 돌아와 기다렸었다。

李씨는『처음 아들이 용의자로 몰렸을때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며『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혐의가 벗겨질 것으로 믿고 진범을 빨리 잡게 해달라고 줄곧 부처님께 빌었다』고 말했다。

張군가족은『그동안 억울한 누명을쓴것이 더없이 분했지만 시일이지나면서 경찰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사에 모든협조를 다해왔다』며『그러나 경찰에서 아들을 면회조차 제대로 시켜주지 않고 범인으로 몰고간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李씨가 아들 張군을 만난 것은 23일과 24일 두차례였는데 이때 張군은 어머니에게『걱정하지 마세요。곧나갑니다』며 尙恩양의 장례식날자를 물으며 애통해했었다는 것。

한편 아버지 張泳寬씨(48)는『당연한일이다』고 잘라 말하고『귀가를 했다해도 명예회복을위해 모든노력을 다하겠다。특히 수사비를 부담해서라도 진범을 잡는데 기여하겠으며 이것은 사회적으로 더럽혀진 아들의 명예를 되찾는방법』이라고 말했다。

捜査官들 허탈 착잡한표정
本部長 "경찰立場 곧밝힌다"

수사본부장 金仁洙江南경찰서장은 이날 자기 사무실에서 지휘결과를 초조히기다리다 검찰의 지시를 전화로 연락받고『수사의결과는 꼭 맞는 수도있지만 맞지않는수도있다』며『검찰의 지휘가 나왔으니 임의재수사할 수밖에없다』고 말하면서도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못했다。

金서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이날하오 4시45분께 자리를 뜨면서『6일중으로 이사건에대한 경찰입장을 밝히겠다』고 강한어조로 말했다。

이날 서울지검 東部지청수사과 사무실에모여 지휘결과를 초조하게기다리던 이사건 전담수사관들도 지휘결과에 대해 놀라와하면서『성의껏 뛰었는데 검찰의인정을 못받은것같다』면서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수사본부 스케치

또 수사본부 가설치된 서울江南경찰서 宣陵파출소에는 이날 하오 金長生수사과장과 형사등 수사관들이 허탈한 모습으로 모여앉아있었고 전경들로 하여금 외부인의 출입을 막은채 앞으로의 수사계획을 짜는등 구수회의를 하고 있었다。

또 수사본부에는 張군아버지와 삼촌이 5일밤에 이어 6일 하오에도 찾아와 張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연예인단 慈善공연
3백만원 募金기탁

佛子연예인단은지난4일충남韓山에서가진지체부자유자돕기자선공연을 통해 3백만원을 모금、舒川군수에게 기탁했다。

周국방、本社에 感謝牌
建軍33周 "戰力증강에 有功"

周永福국방장관은 6일 건군33주년을맞아 본사張康在회장에게 국군전력증강에 물심양면으로 이바지한공을 치하하는 감사패를 보내왔다。감사패는 육군제60훈련단장申尙澈소장에의해 전달됐다。

木洞 어린이집開院
李順子여사 參席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6일 하오 서울 江西區木洞에있는 木洞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테이프를 끊고격려사를한뒤 유아들에게 크레용、파스등학용품을 선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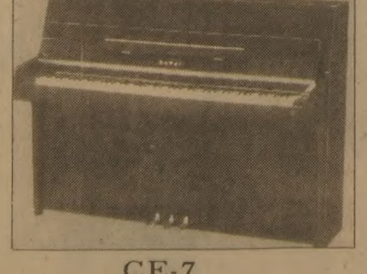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GRAND OPENING SPECIALS
"개업특별 할인세일"
기간 : 10월31일까지

(*)UPRIGHT PIANO

KL-702

안녕하십니까?
교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속에 날로 번창하고 있는 저희 KAWAI KEYBOARD센터는 금번 HILLCREST MALL안에 또하나의 KEY BOARD 센터를 개설하고 여러분께 특별할인 봉사코저 하오니 계속 많으신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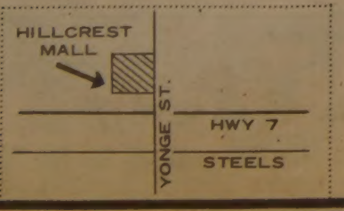


CE-7,
(OPEN WALNUT)
REG. $3,125
SPEC. $2,685

(*)GRAND PI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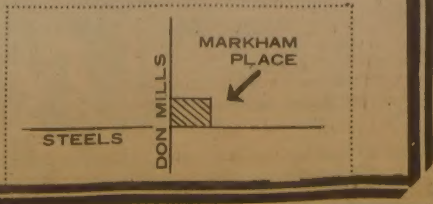
KG-1C
REG. $8,995
SPEC. $7,645

HILLCREST MALL



대표 : 윤 호 섭
전화 : 883－9407, 881－8211
세일즈 매니저 : ALLEN DUMA

MARKHAM PLACE



KAWAI KEYBOARD CENTRE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이게 브래들리회사와의 계약서인데…엉망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게!" "사장님, 저의 지능을 존경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존경하고말고" "참 어리석은 질문이군!"

작년覇者 아르헨팀 예선脫落 위기

世界청소년蹴球

【멜번6日=千一平특파원】 강호 아르헨티나가 예선탈락의 위기를 맞았다. 아르헨티나는 5일 시드니서 열린 제3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예선D조 경기에서 잉글랜드와 1-1로 비김으로써 1무1패를 기록, 남은 카메룬과의 경기서 승리한다하더라도 濠洲-잉글랜드전이 무승부로 끝나면 예선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다. 아르헨티나는 이대회 작년도 우승팀이다.

한편 濠洲는 카메룬과의 경기서 3-3으로 비겨 잉글랜드와 함께 1승1무를 기록 8강진출이 유력해졌다.

아르헨티나-잉글랜드 경기도중 양팀의 팬들이 충돌, 2명이 칼에 찔리는등 10여명이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으며 여러신문에서 이사고를 1면톱으로 보도했다.

◇5일전적
▲D조
아르헨티나 1-1 잉글랜드
(1무1패) (1승1무)
호주 3-3 카메룬
(1승1무) (1무1패)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⑥③

초대內閣의 組閣문제를 두고는 구설수가 오랫동안 뒤따랐다. 이미 말한바 있지만 韓民黨쪽에선 仁村(金性洙)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지 않은데 불만이 컸다. 그 불만은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그대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았다.

內閣에 대해서 近衛부대의 형성이니 美洲派의 得勢니 하는 비난이 있었고 심지어 某신문은 初代내각을 「병신내각」, 「절름발이 내각」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능력과 행위를 두고 부패했다 무능하다 하는 비난의 소리는 들어봤어도 이런 어이없고 무지막지한 비난의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제 막 새출발을 하려는것 아닌가. 오죽 기가 막혔으면 그 深重한 인품의 愛山 李仁이 『내가 다리가 성한하다고 절름발이내각이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또 몰라도 경박스러운 사람들이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니…』 하면서 長嘆息을 했다.

시대의 人物이란 참 묘한 데가 있다. 東西古今을 보면 한시대에 한꺼번에 쏟아져나오기 일쑤다. 태어날 때부터 傑出한 인물도 있겠지만 시대가 인물을 만든다는 말처럼 시대의 격동기일수록 「俊傑」들이 한목에 나오는 것 같다. 總選—組閣을 거치면서 바로 그러했다.

그런 俊傑의 발에서 엮어낸 초대內閣은 일부 비난의 소리처럼 취약한 내각이 아니었다. 나는 그 대열에서 사양하고 다른 閣僚들을 훑어보면 알만 한 것이다.

초대내각을 두고 近衛부대의 형성, 歐美委員部의 得勢라는등의 비난도 있었지만 李承晩대통령과의 인간관계로 보아 그렇다면 13명의 장관과 4處長중 나자신과 商工인 任永信을 제외하고 또 누가 있었단 말인가.

鐵驥 李範奭은 그의 독립군선배 李靑天장군을 제치고 국무총리겸

첫 國務會議

초대內閣을 「美洲派득세」라 비난도
李대통령 주재…私心없는 봉사다짐

국방장관이 되었지만 그는 그저 武人이 아니라 수십년간 험한 광야에서 목숨걸고 抗日투쟁을 해온 선구자중의 하나였다.

韓民黨중진인 金度演(재무)과 張澤相(외무) 李仁(법무), 그들의 인격과 애국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훈을 새삼 얘기할 필요가 없다. 錢鎭漢(사회)은 노동운동의 總帥로서 假借없는 호쾌한 人品의 소유자였다. 농림장관인 曺奉岩, 그에 대해선 左翼운동의 前歷을 두고 유별나게 말이 많았지만 그는 인품이나 역량, 재질이 뛰어났고 투쟁경력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다. 安浩相문교장관도 抗日運動으로 建國초기 교육의초석을 다지는 重責을걸머질만한人物이었다.

그밖의 유수한 인물들, 초대내각은 각계 각파의 인물을 망라한 그야말로 擧國的 내각이었다. 뒷날 파벌과 얽힌 이해관계등으로 서로 반목하고 갈등을 하는 관계로 발전되기도 했지만 초대내각엔 제대로 일할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政略과 派爭에 의한 倒閣의 책동이 없었다면 훌륭한 건국작업을 이룩했을 것이다.

李대통령은 건국초에 한 政派에 의해 업히려하지도 않았고 한 政派에 特權이나 特惠를 주려하지도 않았다. 韓民黨은 건국에 있어 큰 기여를 했음은 사실이나 제1공로자임을 지나치게 내세웠고 정치적 複線이 너무 강렬했다. 李박사는 이를두고 人物은 있으되 調和가 없다고 한탄했다.

◇48년 8월 중앙청에서열린 첫국무회의모습. 李承晩대통령을 중심으로 右측에 李範奭국무총리 張澤相외무 金度演재무 安浩相문교장관등이, 左측에 筆者 任永信상공, 李仁법무장관등이 앉아있다.

첫 국무회의가 소집되기 전 李박사는 날 불러놓고는 『내각인사도 끝나고 나라살림의 틀도 잡혔으나 앞으로 不正이 고개를 들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黨派파쟁의 우려가 있으니 모두를 화합해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전력해나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李박사는 『정치는 본래 인간의 善을 사회에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인데 지난 날엔 우리역사에서 당파싸움과 부정이 정치의뜻을 흐미하게 하고 역사를 어지럽혔다』면서 이런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않도록해달라고 각료들에게 누누이강조했다.

48년8월15일 美軍政이 폐지되고 대한민국정부수립이 선포됐다.

첫 국무회의가 중앙청에서 열렸다. 李대통령을 중심으로 전각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李대통령은 첫 閣議에서 『나라와 민족을위해 공평무사하게 奉公해달라』고당부하면서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편견이 없이 공평무사하게 할 것을신신당부했다. 그는 먼저 질서를 확립하고 기강을세워 上下가 일치단결하여 나라와 겨레에게 私心없이 봉사해야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거의 李대통령이 주재했는데 먼저 李대통령이 문제별로 시달을하고 총리와 各部장관이 의견을 개진하는 式으로진행했다. 그러나의견제시보다도 주로 李대통령의 얘기를 듣는일이 더많았다.

첫 국무회의를 시작으로 비로소 우리손에 의한 행정 추진작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8월25일엔 그 말많던 하지중장이 퇴임하고 콜터소장이 후임으로 왔다. 때를같이해 무초美대통령특사가 李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 9월들어 李範奭국무총리는 국회요청에 따라 행정권 이양에 관해 국회에서 보고를 했다.

流星의 賦

〈201〉
李炳注 作
李友範 畵

明暗 ㉑

손무(孫武)、손빈(孫臏)、오기(吳起)의 얘기를 차례대로 하고 이영은

『병법을 폐일언(蔽一言)하면 경거망동을 삼가라는데 그친다』

고하고 이어 당대(當代)의 장군들을 논평했다.

『앞으로 전란이 있으면 서열상 권율장군이 도원수(都元帥)가 될것이지만 위령(威令)은 있으되 용장(用將)의 비법(秘法)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이일(李鎰)은 두뇌는 명석하지만 자칫 탁상(卓上)의 공론(空論)이 되기가 쉽고 신립은 용맹은 있으나 지략(知略)이 어떨지 모르겠다』

계남이 물었다.

『이순신은 어떠하오리까』

『인간이 순후하고 지략 또한 있는 것 같지만 아직 대군(大軍)을 거느린 적이 없으니 평량(評量)하기가 어렵다』

『그밖에 발탁할 장수가 없사오이까』

『무관(武官)이 문신(文臣)에게 억눌려 살기가 수백년이라, 무변(武邊)엔 인재가 드물어 통탄할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전란이라도 발생하면 큰 일이 아니오야까』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오싹할 지경이다. 내 생각 같아선 각지의 서원(書院)에서 책만 읽을 것이 아니라 무술(武術)의 연마도 있음직 하지만 어디 내뜻이 통할 수 있겠나』

『아닌게 아니라 병사(兵士)의 양성이 너무나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병사들은 거의 모두가 오합지졸이나 다름바가 없거던요』

『나라의 형편으로 봐선 10만쯤의 정예군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어늘』

『그런데 왜 조정은 그렇게 단행하질 않는겁니까』

『감히 말을 낼 수가 없지』

『왜 그렇습니까』

『홍공은 나라의 사정을 아는가?』

『모르옵니다』

『작년 조정의 세입은 통틀어 30만석이 못되었다네. 장정 10만을 먹이려면 군량미(軍糧米)만 해도, 각인이 한해 두섬을 먹는다고 치고 20만석이 있어야할 것 아닌가. 30만석 세입으로서 20만석 군량미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리고 군량미만 가지고 될것이 아니거든. 곤란은 나라가 원체 가난한데 있는거여. 언젠가 조정에서 십만양병안(十萬養兵案)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랬더니 임금이 대뜸 뭣으로 병정을 먹일거냐고 반문했다지 않아. 그자는 비웃음만 사고 말을 거둬들여버렸지』

『세입을 3배쯤으로 불리면 되지 않겠읍니까?』

『이 사람 무슨 소릴 하는가. 30만석의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만저만한 고생이 아니라네. 3백만석 소출에 1할을 거둬야 할것 아닌가. 조정이 1할을 거둔다면 실지에 있어선 3할, 4할을 거둬야해. 그렇게 되는데 지금의 세입 3배나 불리려면 백성은 모두 굶어죽어야 할걸세』

『농사를 지을만한 땅이 황무지로 남아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걸 개간해서 경지면적을 넓히는 노력도 있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거언(其言)은 선(善)이나 어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개간은 백성이해야 하는데 개간만 해놓으면 땅을 양반에게 뺏기는 세상 아닌가』

모른줄이 있어生

〈220〉
趙善作 作
金光培 畵

돌개바람 불다 ㉑

나는 매우 절룩거리면서 역 앞 광장으로 나섰다. 아직 동이 트지는 않았지만 통금은 이미 해제된 시간이었다. 방범등을 켠 택시 두어 대가 광장의 한쪽에 서 있을뿐, 상점들은 모두 문이 닫혀져 있었다.

광장 한 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나는 그들이 남기고 간 징후를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방법등을 켠 빈 택시가 겨우 그들이 온양까지 택시를 대절했으리라는 상상을 가능하게 해주었을 뿐이었다. 달리기 시작한 열차에서 뛰어 내린 모험의 댓가치고는 너무도 허무한 것이 아닐수 없었다. 그렇다면 모험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었으며, 다음 역에서 안전하게 내려 그들을 뒤쫓은 편이 옳았을 것이다. 더구나 나는 여행 가방까지 열차에 두고 내린 형편이었다. 다행히도 티켓이나 얼마 안되는 여비 따위는 몸에 지니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자로서 꼭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나는 가방 속에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가방을 잃은 허전한 실물감은, 그들의 뒷모습을 놓친 안타까움에 비기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멀리서나마 그들의 뒷모습을 어림하며 그들을 뒤쫓는 행위와, 온양으로 갔을거라는 짐작 하나를 길고 온양 일대를 수색해서 그들을 찾아내야하는 행위 사이에는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얼굴과 손바닥과 무릎에 찰과상을 입은 몸이었다. 그런 몸으로 온양일대의 거리를 헤매야한다고 생각하니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느낌이기조차 했다.

아뭏든 나는 다시 그들의 추적에 돌입했다. 절룩거리며 나는 광장 한쪽의 빈택시로 다가갔고, 요금을 흥정한 다음 택시에 올랐다. 택시가 출발하자 나는 운전기사를 상대로 희미한 가능성을 점치며 물었다. 혹시 조금 전에 일행 네사람이 온양까지 택시를 대절한 것을 보지 못했느냐고. 그러나 운전기사는 그런것을 보지못한 모양이었다. 서둘다고 서둘렀는데도 역 광장에 도착해 보니 부산에서 달려와 새벽네시 몇분에 도착하는 기차 손님을 모두 놓쳐 버렸다고 그는 투덜거린 것이다. 나는 그에게 온양에 위치한 관광호텔들에 관해서 다시 물었고, 그는 내가 묻지도않는, 호텔에 버금가는 일류 여관들까지 모두 들먹여 주었다.

택시는 무서운 속도로 달려서 순식간에 나를 온양에 내려주었다. 나는 열몇의 장처를 손수건으로 가리고 운전기사가 손가락질로 가리켜준 두군데 호텔 프런트를 순례했다. 프런트의 종업원들은 내게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았다. 그럴 것이 찢기고 다친 초라한 여자의 몰골로 그들의 친절을 유발해낸다는 것은 무리일 테니까. 게다가 나는 다급하게 호소하는 자세였고, 그들이 그런 내게 의심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뭏든 그 두군데 호텔의 프런트 종업원들에 의하면 일행은 그곳에 투숙하지 않은 것이다. 두군데 모두 일행이 넷이었을 들이 왔던 조금 전에, 그러니까 한시간전 이래로는 투숙절차를 밟은 고객이 숫제 한명도 없다는 대답이었다.

나는 매우 실망하여 두군데의 서로 마주보고 있는 관광호텔 프런트를 물러났다. 그럼 그들이 온양으로 온게 아니란 말인가. 하고 비로소 나는 다른 가능성을 머리에 떠올렸으며, 인근의 도고온천호텔을 생각해 냈다.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고장이었지만, 관광 안내 광고나 여행사의 팸플릿 같은 데서 논 가운데 하얗게 드러나 있는 도고 호텔의 풍경을 나는 보아왔던 것이다. 생각이 한번 그쪽에 미치자 나는 다녀오지 않고는 견딜수가 없었다.

美 올해스포츠女性 에버트、콜킨즈選定

【뉴욕5日AP=聯】 美國의테니스스타 크리스·에버트·로이드와 10대수영선수 트레이시·콜킨즈가 美여성스포츠재단에의해 올해의 프로및아마추어 스포츠여성으로 선정됐다.

올해의 스포츠여성은 80년 6월부터 81년6월까지의 경기실적을 토대로 전세계 보도매체대표자들의 투표로 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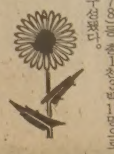
에버트·로이드는 80년에 全美오픈클레이코트테니스선수권대회와 캐나다 국제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윔블던 테니스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81년에는 윔블던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또 美여자수영을 석권하고 있는 콜킨즈는 여자수영 2백m평영과 2백m혼영의 세계기록을 세웠다.

國體서울팀 結團

제62회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서울시 선수단은 6일상오11시 장충체육관서 결단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서울시 선수단은 盧師德총감독(서울시 체육회부회장)을 비롯 임원2백50명 선수1천61명 (남 783、여 278)등 총1천3백11명으로 구성됐다.



대한태권도협회 KOREA TAEKWONDO ASSOCIATION

제4회 캐네디안 태권도 챔피온쉽

Demonstration by Masters!

SATURDAY, OCT. 10th. 1981

Eliminations 10 : 00AM
Final 7 : 00PM

YORK UNIVERSITY GYMNASIUM

4700 Keele St. Toronto, Ont.
Tait McKenzie Bldg.

ADMISSION FEES

Adults $5.00
Children $3.00

Tickets available at
Main Reception Counter
in York University. Gymnasium

INFORMATION CALL :
(416) 922-5117

* 티켙을 구입하시려는 분은 각한인 태권도 도장에게 문의바람

카나다 한인태권도 협회
회장 정 기 태

후 원 : 한 국 대 사 관
대한체육회 카나다지부
카나다 W.T.F. 태권도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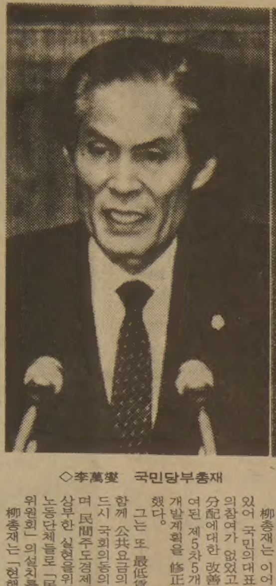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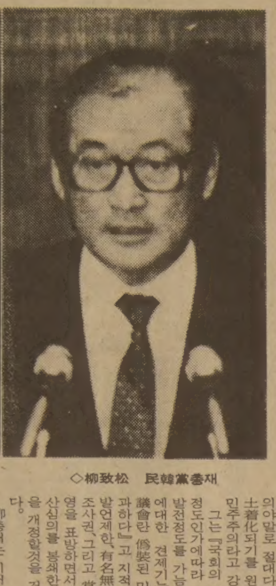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教育稅반대·國會法개정 촉구

國會本會議 民韓·국민당 대표연설

議會權能 民主발전가늠 — 柳致松 총재
追豫편성말고 稅輕減을 — 李萬燮 부총재

국회는 5일하오2시 南悳祐국무총리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本會議를 열고 柳致松民韓黨총재와 李萬燮국민당부총재의 대표기조연설을 들었다. 국회는 6일부터 13일까지 本會議를열고 21명의 의원들이 나서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에 관해 對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날회의에서 柳총재와 李부총재는 각기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民韓黨과 국민당의 기본 입장을 밝히는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의 權能회복을 위해 이번 會期안에 國會法을 개정하고 ▲教育稅의 신설을 반대하며 ▲새 시대에 同參할 수 있도록 정치規制들을 解禁할것과 ▲서울 釜山등 대도시부터 地方自治制의 조속한 실시 ▲언론자유의 暢達 ▲최저임금제의 조속실시등을 촉구했다.



◇李萬燮 국민당부총재 ◇柳致松 民韓黨총재

柳총재 연설내용
維新잔재단호清算·政權交替 보장돼야

柳총재는 특히 정치문제에 重點을 두면서 『정부가 진심으로 새시대의 幕을열려면 정치 경제등 모든 부문에 도사리고있는 舊體制의 殘滓를단호히 清算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維新體制의 殘滓를 깨끗이청산한 토대위에서 공정한경쟁의 원리가 구현되는 민주주의야말로 절대다수의 국민이 土着化되기를 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權能이 어느정도인가에따라 민주주의의 발전정도를 가늠하며 行政府에대한 견제기능을 상실한 議會란 僞裝된 민주체제에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의원의 발언제한, 有名無實化한 國政조사권, 그리고 常委중심의운영을 표방하면서 常委의 예산심의를 봉쇄한 현행국회법을 개정할것을 거듭 주장했다.

柳총재는 이어 기획수립에 있어 국민의대표기관인 국회의 참여가 없었고 또 공정한 分配에대한 改善방향등이 결여된 제5차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을 修正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最低賃金制실시와 함께 公共요금의 인상은 반드시 국회의동의를 얻어야하며 民間주도경제체제의 명실상부한 실현을위해 民間단체 노동단체들로 「民間경제안정위원회」의설치를 제의했다.

柳총재는 「현행 법률과 제도속에 溫存하는 維新體制의 毒素를 제거하기위해」 국회내에 「法令整備 特別委員會」의 설치를 제의하는한편 『오늘의 言論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表明하지 않을수없다』면서 言論 基本法의 개정을 주장했다.

柳총재는 또 『維新體制가 남겨놓은 뿌리깊은 惡習의 하나는 사회전체에 만연된 不信風潮』라고 지적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밝고 명랑한사회」를 具現하기위해서는 이 不信풍조가 사라져야한다』고 강조했다.

李부총재 연설내용

국민당의 李부총재는 주로 경제문제에 力點을 두면서 『오늘날의 경제위기를 克服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년 예산의 실질규모가 現年度보다 축소되거나 그수준에서 凍結되어야한다』고 말하고 『방만한 행정조직을 혁명적으로 축소하여 예산을 節減하고 국영기업체도 民營化시켜「간소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부총재는 또 『예산절감과 아울러 전체적으로 稅率을 인하조정하여 국민의 稅부담을 輕減시키라』고 촉구하고 『중소기업 육성을위해 특별저리자금을 새해예산안에 대폭 增額하라』고 요구했다.

李부총재는 특히 88년 올림픽의 서울개최에 대해 『방대한 경비 지출이 인플레 조장요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할것이며 選手村은 앞으로 주택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는등 그시설을 경제적으로 活用하여 「빚잔치」가 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울것』을 당부했다.

그는 올해 秋穀收買價및收買量에언급, 물가상승에따른 농민생활의 보호와 增産의욕을 북돋우기위해 반드시 생산가를 상회하는선에서 책정하고 收買量도 농민이원하는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李부총재는 선거구민의 民願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해 국회에 「民願처리특별위원회」를설치할것을제의했다.

그는이밖에 附價稅폐지와 非同盟외교강화등을역설했다.

사마란치 IOC위원장 金聖佑특파원 單獨회견

한국特色 뚜렷한 大會기대

"壓力과싸워온 올림픽, 뜻깊은 決定"

【바덴바덴5日=金聖佑특파원】후안·안토니오·사마란치 IOC위원장은 88년 서울에 올림픽을 개최할 한국국민에게 『나는 서울에 올림픽 개최를 의뢰하게 된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한국인여러분은 올림픽역사상 가장훌륭한 올림픽을 열 능력과 열의가 있다는것을 믿고있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사마란치위원장은 서울올림픽을 결정한 제84차 IOC총회가 끝난뒤 3일 숙소인 바덴바덴의 브레너스 파크호텔에서 기자와 단독회견을 갖고 『서울올림픽은 간결하면서도 완벽하게 조직된올림픽이라야 할것이며 한국적인 특색이 뚜렷한 대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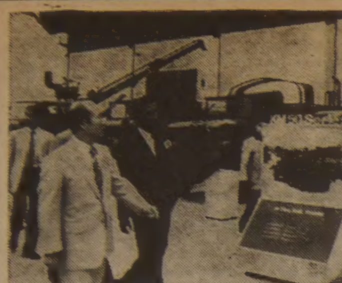
그는 또 서울개최결정은 지금까지 IOC가 내린 결정중 가장 중요한것이었다고 말하고 IOC는 이같은 결정이 있기전 자체조사단을 파견, 조사한결과 서울을 긍정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림픽운동은 여러차례 국가간의 분쟁에서 야기되는 압력과 싸워왔고 그때마다 이를 훌륭히 극복해 나갈수 있었다고 전제, 분단국인 한국에서의 올림픽개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사마란치 IOC위원장

사마란치위원장은 『IOC는 한국의 조직과 운영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은 인력및 모든 분야에서 잘 조직된나라라고 평했다.

사마란치위원장은 『서울올림픽은 한국인의 생활방식을 표현하는것이어야하며 성공적으로 잘 조직 운영해 나가야할것』이라고 답변했다.


◇全대통령이 4일 防衛산업물자 展示會를 둘러보고있다.

"防産업체系列化를"
全대통령, 物資전시회 참관

全斗煥 대통령은 4일 防衛産業育成과 관련, 『방위산업체들은 業體끼리의 과다한 경쟁을 지양하고 서로 협조해서 전문部品 생산체제를 系列化하는데 힘써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일요일인 이날 낮 서울江南區三成洞 한국종합전시장에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주최로 열리고있는 「방위산업 물자전시회」를 둘러본뒤 出品업체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하고 『防産업체들도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만을 기대할것이 아니라 자체財務구조를 건실하게 하는등 운영의건실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오찬에앞서 약 1시간50분동안 전자통신장비, 총포탄약류등이 전시된 室內전시장과 軍用차량, 국산헬리콥터등이 전시된 屋外전시장을 차례로 살펴보고 출품업체직원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뉴질랜드 外相접견

全斗煥 대통령은 5일 하오 청와대에서 뉴질랜드의탈보이스 通商相겸 外相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徐錫俊 상공장관과 파논 駐韓뉴질랜드 대사가 배석했다.

올림픽 분수에 맞게
全대통령誘致團접견 기존시설최대活用

全斗煥 대통령은 4일 『올림픽은 세계각국간의 평화및 友好증진의 大祭典으로서 특히 88년올림픽이 分斷國인 한국에서 열기로 결정된것은 그이상의 의의가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하고 『이제부터 정부와 국민, 각계각층은 衆智를 모아 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을위해 최대한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일요일인 이날 하오 청와대에서 올림픽 서울유치에 성공하고 귀국한 誘致團대표들을 접견한뒤 환담하는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기존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 비용을절감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도록 해야할것』이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 『88년 서울올림픽은 호사스럽지않고 內實있게 우리의 능력과 분수에 맞는 올림픽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올림픽유치단이 좋은성과를 이룩한데 대해 노고를 치하했다.

이자리에는 朴英秀서울시장 曺相鎬KOC위원장 鄭周永올림픽유치준비위원장 李源京KOC고문 李元洪KBS사장등 20여명의 유치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하오 서울 蠶室에있는 서울종합운동장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약 30분동안 鄭文煥건설부장으로부터 88년서울올림픽에 대비한 국립종합경기장 건설계획과 서울종합운동장 건설현황을 보고받았다.

韓美, 文化관계로성숙
워커大使 韓美협회연설 80年代의 관계 전망

리처드·L·워커駐韓美대사는 5일 80년대의 韓美관계는 문화적차원에서 재조정하는 시기가 될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워커대사는 이날 韓美協會(회장 宋仁相) 초청만찬연설을 통해 월남전을 치른 70年代에 韓美두나라는 내부지향적이고 자기反省的인 망설임의 10년을 보냈다고 전제하고 양국관계는 지난30년에 걸쳐 형성된 광범하고 다양한 의사소통망을 십분 활용, 문화적 차원에서 재조정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도합 2백만명이나되는 미국인이 「한국미술 5천년전」을 관람한사실은 더욱 친근감을갖고 한국을 이해하려는 미국인들의 열의를표명한것이라고 지적했다.

防衛費 聖域아니다 스즈끼, 再論示唆

【東京5日朝=聯】스즈끼(鈴木)일본수상은 5일 중의원에서 일본의 방위예산이 아무도 손댈수 없는 「성역」은 아니라고 언급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내년의 국방예산을 7.5% 증액해달라는 방위청의 요청을 면밀히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스즈끼 수상은 자신은 당분간 日방위비가 GNP의 1%내로 유지될수 있을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25坪이상 아파트등 分讓價 완전自律化

小型도 의무화안해
건설부"民間主導따라活性化"

李圭孝건설부차관은 5일 민간주택건설사업자들이짓는 25평이상 아파트나 주택의분양가격 책정에 정부가 일체간여하지않고 완전 자율화방침을 고수해나갈 것이라고말했다.

李차관은 정부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자율화 조치가 각계각층의 의견을종합, 확정한 것일뿐더러 경제활동에 대한 民間主導의 원칙을 주택부문에 그대로 반영시킨 것인만큼 앞으로는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음성적으로 종용해왔던 가격규제도 일체 하지않도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5평이하의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사업자들이 사회윤리적 측면을 고려, 대형아파트와함께 일정비율씩 섞어 짓도록 권고, 지도해 나가되 의무화시키지는 않을것이며 분양가격결정도 일반상식으로 납득할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차관은 또 이제까지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각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치를 통해 아파트단지내의 공공시설과 용지를 기부채납형식으로 받아냄으로써 사실상 분양가격상승요인을 만들어 입주자부담이 많아졌던 잘못된 행위가 앞으로는 일체 이같은 사업계획을 승인할때는 불필요한 시설, 예컨대 지하층의 과다책정같은 문제를 철저히 가려 합리적인가격이 산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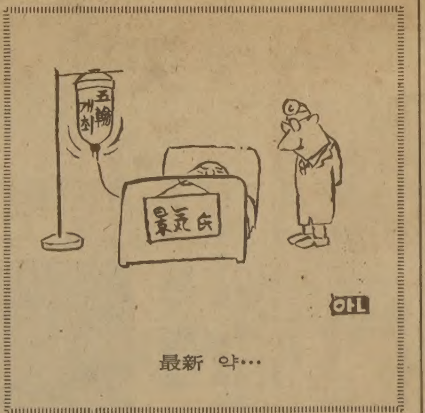
李차관은 이밖에 정부의주택정책은 25평이하 국민주택을 집중건설한다는데 변함이없으므로 25평이하 주택을짓는 주택사업자에대한 지원과 전반적인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것이며 아파트분양과정에서의 전매·명의차용등 부당거래행위는 사회정화적 차원에서 엄격히다스려 나갈것이라고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五輪개최 外交승리 LA타임즈紙

【로스앤젤레스支社】로스앤젤레스·타임즈紙는 3일 88년하계올림픽의 서울개최 결정은 한국에 크나큰 외교적 승리를 안겨줌과 동시에 한국민들에 민족적 자부심을 심어주었다고 보도했다.

社會漫評



最新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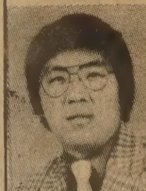
地平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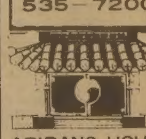
미국에 부러울게 하나 있다면 젊고 매혹적인 대통령부인 재클린·케네디라고 「유럽의 양반」 행세를 하던 드골은 말했다. 미국을 돌아본 소련수상 흐루시초프는 그러나 재키가 아니라 『고속도로와 디즈니랜드가 부럽다』고꼽았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라면 두말할것도 없이 사람들은 「영원의 도시 로마」를 꼽게 마련이다. 콜로디라는 마을을 아는 사람은 흔치않다. ▼이탈리아반도 중부 터스커니지방의 산허리에 자리잡은 인구1천8백의 그림같은 마을 콜로디에서는 지난주 즐거운 축제가 벌어졌다. 『성경을 빼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다』는 『피노키오』의 탄생1백돌을 기념하는 축제다. 한국의 꼬마들도 빼지않고읽게 마련인 「피노키오」는 세계각지에서 80개국어로 번역돼 나왔다고한다. ▼개구장이 피노키오는 가난하고 외로운 토니오 할아버지가 나무토막을 깎아서 만든 인형이었다. 『너도 사람이 될수있다』는 귀뚜라미의 말에 용기를 얻은 피노키오였지만 남이 부추겨주면 우쭐해지고, 호기심과 모험심을 참지못해 갖가지 사고를 저지르게된다. 말하는 귀뚜라미, 악당 여우와 고양이등이 등장하는 파란만장의모험끝에 피노키오는 결국 사람이 됐다는줄거리다. ▼피노키오의 작가 카를로·코렌치니는 처음 노름빚에 쪼들려 어린이신문에 이동화를 연재했었다고한다. 15회에서 피노키오가 여우와 고양이에게 속아 죽는것으로 끝내려고했지만, 독자들의 성화에 못이겨 기나긴 모험을 하게했다한다. 젊어서 이탈리아통일전쟁에도 참여했던 그는 이때 나이가 54세였다. 그는 고향의 이름을따서 「콜로디」라는 펜·네임을 썼다. ▼『가난하다면 그것은 벌이 내린거야. 나쁜짓으로 얻은 돈은 몸에 붙지않는다는 속담도 있지않니?』 피노키오가 악당 여우보고 한말처럼 이동화는 갈등적인 교훈을 담고있다. 콜로디재단 총재 안질로티에 의하면 그것은 『아홉살에서 아흔살까지의 모든사람을 위해 쓰인 얘기』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피노키오가 사랑받는 이유다. ▼안질로티는 특히 딴얘기와 달리 서방세계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서도 인기가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아마도 피노키오가 가난속에서 꿈을잃지않고 살았기때문』이라는 것이다. 거짓말을하면 코가 커지는 개구장이 피노키오가 결국 사람이 됐다는 동화를 둘러싸고 지금 이탈리아 전국에서 세미나, 전시회등 행사가 벌어지고있다. 개구장이 인형으로 세계를 정복한 이탈리아를 부러워하지 않을수 없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30
은 : 온스당 US 9.5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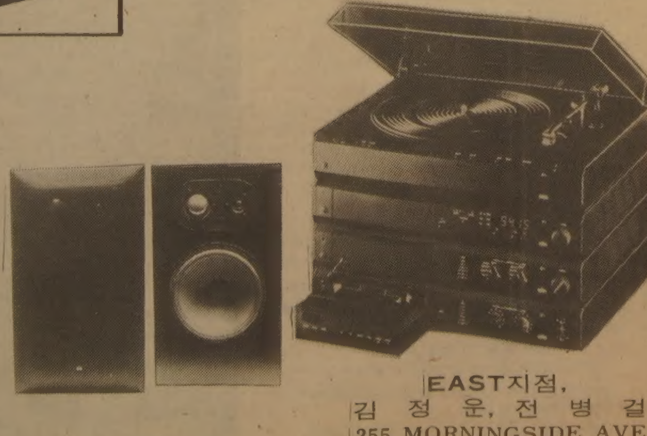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TELEFUNKEN

⊙HR5500 RECEIVER
2X60 WATTS RMS
POWER BANDWIDTH
5-50,000H
⊙DIRECT DRIVE
TURNTABLE
⊙HICOM CASSTE
DECK
⊙2X90 WATTS 3WAY
SPEAKERS

SPECIAL SALE
특별할인

FEATURES :
BRAUN P-1 TURNTABLE : Quartz Lock Direct Drive Fully Automatic, With Low Mass Tone Arm and Brauh Magnetic Cartridge
BRAUN T-1 TUNER : Digital Quartz Lock With 9 Presets, Pll Mosfet Front end, AM-FM-LW.
BRAUN AMPLIFIER : Low Distortion DC. Amplifier. 55 Watts Per Channel. Led Output Levels.
BRAUN C-1 CASSETTE DECK : 3 Motor, All Solenoid, With Convenient Motorized Cassette Drawer. Metal Tape Capability
BRAUN L-1030/4TC : 3 way Speakers With 110 Watts Handling Capacity.

Pure design, Pure Sound··· Pure Braun
BRAUN
※81년도 유럽 전기제품 디자인상 수상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아카데미 T.V.& STEREO CO.

西獨 대규모 反戰集會 계획

宗教界·勞組등 15만명 동원

◇불티나는 勞組發刊 책자 폴란드自由勞組가 제1차 전국대회 2단계 회의를 개최중인 그다니스크市 올리피아체육관밖의 簡易선물판매소에 4일 노무자들이 自由勞組발간책자들을 사기위해 줄지어서 있는모습。【그다니스크(폴란드) 4日AP電送=聯合】

슈미트首相 고립화 촉진

獨內 나토防衛政策 支持에 큰위협

【본4日AP=聯合】서독의 종교계를 비롯한 노조·환경보호단체 반전 그룹등은 오는 10일10만~15만명의 인원을 동원, 본에서 전후 최대규모의 평화집회를 벌일 계획으로있어 슈미트수상의 사민당내고립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서독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정책지지입장에 커다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서독신문들이 4일보도했다.

서독신문들은 슈미트수상이 그의 측근보좌관들에게 지난달중순 서베를린에서 발생한 反美데모와 하이델베르그, 람슈타인, 프랑크푸르트, 비스바덴등지에서 발생한 미국인및 미군사시설에대한 테러공격사건에 이어 벌어지는 이번 평화집회는 현서독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써 폭력을 유발할지도 모른다고 말한것으로 전했다.

신문들은 또 사민당소속의원 2백18명중 48명이 이평화집회를 지지、집회에 참석키로 서명한데다 브란트전수상이 사민당위원장자격으로 이들의 집회참석금지를 거부함으로써 슈미트수상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페인나토加入 반대示威

【마드리드(스페인) 4日UPI=聯合】스페인수도 마드리드와 북부 바스크족 거주지방에서 4일 스페인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입을 반대하는 수만명의 좌익데모대가 미국국기를 불태우고 반미구호를 외치며 데모를 벌였다.

지난3일 시작된 NATO가입반대운동중 절정을 이룬 이날 데모에서 좌익시위대는 불타는 미국성조기를 높이들고『NATO반대』등 반미구호를 외치며 시가를 행진하다 경찰의 최루탄및 고무총탄발사에 밀려 해산했다。

蘇 석유공업 副相 통계조작혐의 罷免

【모스크바5日UPI=聯合】소련석유공업성의 엘릭·할리모프副相은 자신의 개인소득을 늘이는데만 시간을 보낸탓으로 부상자리에서 쫓겨났다고 소련의 사회주의공업지가 4일 폭로했다。

이란大統領 하메네이

投票결과 千6백만표중 千5백24만표 획득

【테헤란4日AFP=聯合】테헤란 금요기도회지도자이며 집권 회교공화당(IRP) 당수인 호자툴레슬람·알리·하메네이는 4일 현재 개표가 끝난 1천6백만여표중 1천5백24만5천8백45표를 획득, 차기 이란 대통령당선이 확정됐다고 이란내무성이 발표했다.

내무성은 이날 관영파르스통신으로 보도된 중간개표결과에서 하메네이의 당선을확인하면서 알리·아크바르·파르바레시 교육상은 32만2백50표, 마느세르·가푸리에너지상은 7만2천8백18표, 레자·자바레이내무차관은 5만5천47표를 각각 획득했으며 33만5천3백34표의 무효표가 나왔다고 밝혔다.

波勞組또"罷業"警告

식품·담배값引上 철회요구

【바르샤바5日AP·AFP=聯合】폴란드자유노조는 5일 일찍정부에대해 5일자로 공식발효될 예정인 생선·과일등 식품 가격인상과 담배가격1백%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만약 이번 물가인상조처가 예정대로 발효될경우 폴란드 전역에걸쳐 파업등 일련의 혼란 사태가 속출할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또다시정부에도전했다.

스즈끼 支持率격감 여론조사結果

【東京5日AP=聯合】스즈끼·젠코(鈴木善幸)日本수상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스즈끼수상취임 14개월만에 급격히 떨어졌고 日本유권자의 약과반수는 정치적으로 무관심한것으로 마이니찌(每日)신문의 여론조사결과 5일 밝혀졌다。

5천6백명을 상대로 실시한 이 여론조사결과 스즈끼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1년전의 38%와 지난6月조사의 33%에서 각각 12%, 7%씩 떨어진 26%로 나타났고不支持率은 1년전의 21%에서 27%로 올랐다。

이閣議、샤론案승인

軍統治權 일부이양

【예루살렘4日AFP=聯合】이스라엘각의는 4일 被占아랍영토에서 일부군통치권을 민간부서에이양하는 이른바 군민권력 분담에관한 샤론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아리엘·샤론 이스라엘 국방상이 입안한 이계획은 요르단 강서안과 가자지구에서 군부가 일부권한을 민간부서에 이양하고 국방안보및 치안에대한 책임을 계속지는것으로서 요르단 강서안과 가자지구의 자치정부수립을 위한 첫단계 조치이다。

메아리

重陽節

오늘 6일은 음력으로 치면 9월9일이다。그런데 요즘에 와서 음력의 9월9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새삼스러운 관심을 갖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것이다。

음력으로 달과 날에 9가 겹치는 날은 중9절 또는 중양절 이라고 하여 예전에는 추석에 못지않은、되려 추석보다도 더 치던 명절이었다。

그 까닭인즉 동양의 고대철학에서는 9가 양수의 극이며 그것이 두개 겹치면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 하여 명절로 삼았다는얘기다。

그러나 추석에는 신곡이 나돌기는 해도 올벼나 수확할수 있을정도이고 또 과일이나 열매도 제대로 익기나 영글지못한 상태이기가 십상인데 중양절에는 농작물이나 과일이나를 가릴것없이 모두 영글어 추수의 실감이 나는 절계인 까닭도 있을것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의 충담스님은 이날남산 삼화령의 미륵세존에게 차를 달여 바쳤다는 것이고 고려시대에는 나라의 잔치가 베풀어졌으며 조선시대에도 이날을 명절로 삼기는 마찬가지 였다。

이를테면 세종대왕때는 이날을 명절로 공인을 했고 성종시대에는 추석에 하던 노인을 위한 잔치 즉 기로연을 중양절에 하도록 할 정도였다。

또 장안의 선비들은 단풍과 국화 놀이를 했고 여염에서는 국화전을 지져먹고 화채로 시식을삼는등 했으나 대중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양반중심의 명절로 머문듯 하다。

당시 서울의 선비들은 이날 가깝게는 남산과북악으로 또 좀 멀리는 남한산이나 북한산 아니면 도봉산이나 수락산으로 들놀이를 나가서 거나하게 국화산 꺾어가며 술에 취해서 도도한 시흥에 젖곤 했다。

그런데도 오늘날 가을 명절의 구실을 추석에 넘겨주고 중양절은 적적만 하니 명절의 명맥도 많은 서민 속에 뿌리를 내릴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오랜 세월 동안에는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단풍이 한창으로 아름답게 타고 국향이 날로 그윽한 향내를 더해가는 중양절을 우리는 외면만 할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다。

外信안테나

■쿠웨이트、이란駐在大使를 소환=쿠웨이트정부는 지난주 이란공군기들이 쿠웨이트의 送油管을 공격한데 대한 보복으로 이란주재대사를 소환하는한편 국가방위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승인했다고 관영 쿠웨이트방송이 4일 보도했다。【쿠웨이트=聯】

■美、사우디危機땐 적극支援=와인버거 미국방장관은 4일 TV회견을 통해 사우디가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물론 국내에서 혁명위협에직면할 경우 미국은 사우디가 원하는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인버거장관은 특히 사우디에서 혁명조짐이 보일경우 미국은 사우디가 바라는대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것이라고 강조하고 미국과 西方측에 비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聯】

■蘇·쿠바軍2만 이디오피아駐屯=소련과 쿠바는「신속배치軍」구실을 충분히 해낼수있는 2만명이상의 병력을 이디오피아에 주둔시키고있으며 이같은 소련및 쿠바軍의 이디오피아주둔은 페르시아灣지역과 北아프리카전역에 위협이되고있다고 이집트국방상 압델·할림·아부·가잘라장군이 4일 공개된 이집트 잡지 로세·엘·유세프誌와의 회견에서 말했다。【카이로4日UPI=聯合】

유럽通貨制度 재조정

西獨 마르크·和 길더貨 5·5%平價切上

EC10國 財相회의

【브뤼셀(벨기에) 4日AP·AFP=聯合】歐共市(EEC)財相들은 4일 西獨마르크貨와 네덜란드의 길더貨를 5·5% 평가절상하고 프랑스 프랑貨와 이탈리아 리라貨를3% 평가절하함으로써 유럽通貨制度(EMS)를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한스·마르휘피 西獨經濟相이 발표했다.

歐共市10개국財相들의 특별회의는 域內 프랑스와 이탈리아경제를 지원하고 유럽通貨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같은 EMS환율조정을 단행한것인데 이로써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었으며 반대로 西獨과네덜란드는 수출경쟁력이 다소 약화된대신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게 되었다.

歐共市10개국중 英國과그리스를 제외한 8개국통화를 연결시켜 지난1979년3월 발족한 EMS의 이번 환율변동이 域外通貨인 달러貨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줄지는 당장 명백하지는 않으나 이론적으로는 달러貨가 프랑스 프랑貨와 이탈리아 리라貨에대해서는 強化되고 西獨마르크와 네덜란드의 길더貨에 대해서는 약화된다.

西獨은 마르크貨가 1948년 창설된후 9번째의 이번 평가절상으로 지난9월0.5%의 소비자물가상승을 보이는등 계속되는 인플레상승률을 둔화시키면서 수출의 활력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브뤼셀의 財界소식통들이 말했다.

經濟不均衡…再編불가피

달러貨 強勢로 通貨不安 <해설>

유럽통화체제(EMS)의 재편성은 域內회원국이 당면한 경제적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불가피했다.

특히 레이건행정부 출범후 강세로 변한 달러로 域內회원국의 통화불안이 심화되자 EMS가 규정한 통화변동한도 2·25%는 지켜내기가 너무 벅찼다.

예를들면 프랑스, 벨기에는 자국통화 가치의 안정을위해 보유외환의 막대한낭비를 감수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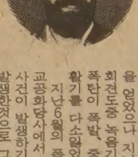
국내 금리정책으로는 더이상 프랑貨방어가 힘겨자 프랑스는 서독에대해 EMS개편을 촉구했다. 域內 국가중에서는 튼튼한 경제체질을가진 서독도 달러강세로 국내인플레가 서서히 기세를보이게돼 마르크貨의 평가절상을 결심하고 EMS개편 요구에 응했다.

프랑화방어를 위해서 高金利부담을 빨리벗고 국내실업에 대처해야하는 절박한과제를안은 프랑스는 이번 EMS재편요구로 서독에 빚을진셈이다.

서독은 마르크의 평가절상으로 域內무역에서는 농산물교역을 중심으로 적지않은타격을 예상하고 있다。단기적으로는 마크로화의 강세가 현금수입을 증대시켜 무역수지에 큰영향은없다고 마퇴퍼 서독재무상은말했다。마퇴퍼재무상의 발언이 시사하는것처럼 이번 EMS재편은「정치적 타협」으로 수명이 짧은 조치가될 가능성이크다。【崔相鍋기자】

얼굴

새 이란 大統領 하메네이 回教革命후 權力중심권에



【테헤란2日AP=聯合】새 이란 대통령에 당선된 호자툴레슬람·알리·하메네이(41)는 이란동부 호라산省의 마사드出身으로 회교 최고지도자 아야툴라·루훌라·호메이니옹및 그가 이끄는 회교정통주의정치운동과 18년간이나 관계를 맺어왔다.

하메네이는 이란회교혁명후 늘 권력의 중심권에 있어왔다。

혁명평의회가 해체될때까지 평의회의원을 지낸 그는 國防次官補를 지냈고 현재는 회교공화당사무총장겸 호메이니옹의 최고국방회의의대표직을 겸임하고있다。

하메네이는 열변자로 명성을 얻었으나 지난6월 기자회견도중 녹음기에 감추어진 폭탄이 폭발、중상을 입은후 활기를 다소잃었다。

지난6월의 폭발사건은 회교공화당사에서 대규모 폭발사건이 발생하기 수시간전에 발생한것으로 그는 5시간의 대수술을 받고 1개월간이나 입원했었다。

그러나 그의 지지자들은 그를「혁명의 살아있는 순교자」로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었다。

13개調査團이 모두 서울을 贊成

사마란치 IOC委員長 本社記者와 單獨인터뷰

—IOC가 88년 하계올림픽개최를 서울로 결정한데 대한 소감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IOC의 지금까지의 결정중 가장 중요한 결정의 하나가 될것이다.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아주어렵고 힘든는 일이다. 어째서 IOC는 이런큰 일을 한국에 맡기게 되었는가.

▲올림픽은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열려야한다는 IOC의 전통적인 원칙을 준수하여 IOC위원들이 투표한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은 東京과 삿뽀로에서 각각 하계와 동계의 올림픽이 있었다. 한국은 올림픽이 처음인나라이고 많은 힘을 가진나라다. 이 한국이 신청을 해왔기때문에 한국을 신뢰하고 맡긴것이다.

—여간한 신뢰없이 올림픽을 맡길수는 없다. IOC의 한국에 대한 신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IOC는 이번에 처음으로 IOC자체의 조사단과 국제경기연맹의 조사단을 보내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별 올림픽위원회(NOC) 조사단이 파견되었는데 13개조사단의 보고가 모두 서울에 긍정적이었다.

나고야도 물론 긍정적이기는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스타디움의 공사가 60%나 진척되어 있는등 올림픽을 열수있는 경기장 시설이 이미 많이 갖추어진것을 보고 놀랐다.

—경기시설이나 경제적 능력은 조사단의 보고서나 우리 유치대표단의 제안설명등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할수 있는 조직과 운영의 능력은 어떻게 안심할수가 있었는가.

▲한국은 잘조직된 나라다. 모든 분야에서 잘조직되어있다는것을 알기때문에 믿을수있었다. 체육기술분야의 계획에서도 나무랄데없고 각종 올림픽경기를 조직할수있는 인력도있다. 그리고 경기경험을가진 인력이 모자라면 가까운나라나 다른 친한나라로부터 도움을받을수있을 것이다.

운영能力믿어…選手村 세심한신경을

「南北韓단일팀」문제、스스로解決해야

來4월訪韓…他國에훌륭한 教訓주길

—분단한국의 정치상황이 올림픽개최에는 부적당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부에 있었는데도 IOC의 결정에는 이우려가 아무 작용도 하지않았는데.

▲올림픽운동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일은 올림픽운동에 영향을 줄수있다. 국가간에 평화가있으면 별일없지만 문제가 생기면 간접적으로 영향을미친다. 올림픽운동은 이 압력과 싸워왔고 여러차례 걸쳐 뭉치면 이길수있다는것을 시위한바있다.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처음 올림픽을 열게된 한국의 책임은.

▲서울올림픽은 다른 모든 나라에 교훈이 될것이다. 만약 한국에서 올림픽을 잘 조직운영하여 성공하게되면 앞으로 많은 중진국들이 올림픽개최신청을 해올것이다.

—올림픽유치를 위한 한국의노력을 어떻게 평가 하는가.

▲한국의 노력은 훌륭한것이었다. 한국은 일을 잘 했다. 설명이 아주명료해서 올림픽유치에 유리했다.

—한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것은 한국에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국을 위해 매우 중요한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을 이해시키고, 발전을 위해 한국이 이룩한것을 보여줄기회가 될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올림픽이란 어떤것인가.

▲우리 IOC로서는 아주 심플한, 조직이 아주 잘되어서 간결한 올림픽을 원한다. 그리고 올림픽의 주변은 운동선수들인데 때때로 이것이 잊혀질때가 있다.

훌륭한 올림픽이 되자면나는 선수촌에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제도가 다튼 세계모든 나라의 선수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곳이 선수촌이다.

—화려한 올림픽에는 반대인가.

▲너무 불리기만 하는것에는 반대이다. 심플해야 하지만 운영기술면에서는 너무성급히 처리해서는 안된다. 운영기술면에서 가장 훌륭한올림픽이어야 한다.

—올림픽운영이 어려운것이라면 특히 어떤점이 어려운가. 어떤점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가.

▲서울올림픽때부터 테니스와 탁구가 (아마 한국이좋아하겠지만) 새올림픽종목이 된다. 이런 올림픽종목은 종목마다 각각 다른문제가 있다.한국은 이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 IOC뿐아니라 각경기의 국제연맹과 긴밀한 연락을 가지고 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한국인은 열심히 그리고 잘 일할줄알고있다.

—지금까지의 올림픽가운데 한국이 모범으로 삼을만한 올림픽은 어느것인가.

▲1948년 이후의 모든 올림픽을 하나하나 면밀히검토할 필요가있다. 각 올림픽마다 작거나 크거나간에 교훈이 될만한점이 있을것이다.

—서울올림픽이 지금까지의 올림픽에 비해 보다 독창적인것이되자면 어떤 점에서 다른것이기를 바라는가.

▲서울올림픽은 한편으로는 경기기술면에서 완벽하게 조직된것이기를 바라고 또한편으로는 운동선수에게 한순간도 놓치지않고 세심하게마음을 쓰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서울올림픽은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한국인의 존재방식이 나타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한국적인 특색이 뚜렷한 대회가되기를 기대한다.

—IOC위원장에 피선된후 처음 결정한 올림픽 개최지가 서울이다. 한국과의 인연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아직 한국을 잘모른다. 내년4월 한국을 방문하겠다. 그때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과의 인연을 깊게 하겠다.

—88년 서울올림픽에 南北韓 단일팀의 참가가 실현될수 있다면 이것은 IOC위원장의 희망에 합치하는 일인가.

▲그것은 스포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고생각한다. 한국자신이 해결해야한다.

—서울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국민에게 보낼 메시지가 있다면.

▲한국의 수도 서울에 올림픽을 의뢰하게된것을 나는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은 전세계 모든 체육인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인 여러분을 전적으로신임한다. 한국인 여러분에게는 서울을 올림픽 사상 가장 훌륭한 올림픽개최지의 하나로 만들 능력과 열기가 있다는것을 나는 믿고있다.

【바덴바덴=金聖佑특파원】

海外토픽

오스월드 屍身확인 ★「蘇첩자屍體」억측규명

【댈라스(美텍사스州) 4日AP=聯合】일단의 의사들은 4일 케네디前美대통령의 암살범인 리·하비·오스월드의 무덤에서 그의屍身을파내 검사를 하고 이 시체가 오스월드임을 확인했다.

3명의 병리학 전문의들은 이날 오스월드의 무덤에파묻힌 시체가 오스월드가아니라 蘇聯첩자의 시체라는 항간의 억측을 규명하기위해 오스월드의 미망인 마리나·오스월드·포터여사의 동의를 얻어 그같은 검시를 실시, 오스월드의 시신임을 확인했다.

그런데 앞서 英國의 저술가 마이클·에모우즈씨는 오스월드가 파묻혔다는 무덤의 시체가 실은 소련이 오스월드대신 파묻히도록 미국에보낸 한 소련첩자의 시신이라고 주장, 오스월드시신의 검시를 요구하고 나섰었다.

◇파헤쳐진 오스월드 무덤 케네디前美대통령의 암살자인 리·하비·오스월드의 시체진부를 확인하기위해 인부들이 4일오후 그의 무덤을 파내어 관을 열구차에 싣고있다.【포트·워드(美텍사스州) 4日AP電送=聯合】

僑胞銀行설립 난관

캘리포니아주 은행국은 한인타운에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는것을 제안하겠다』고 9월말에 밝혀 교포금융기관을 설립하려는 로스앤젤레스지역교포인사들의 열의에 제동을 걸었다.

주은행국 로스앤젤레스분실카머론차장은 로스앤젤레스와 오린지카운터 한인타운의 현지은행및 캘리포니아외환은행지점 설립이 인가되었지만 은행국에 제출한 예정계획보다 개업날짜가 지연되고있어 추후의 교포은행설립인가는 곤란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현대한국작가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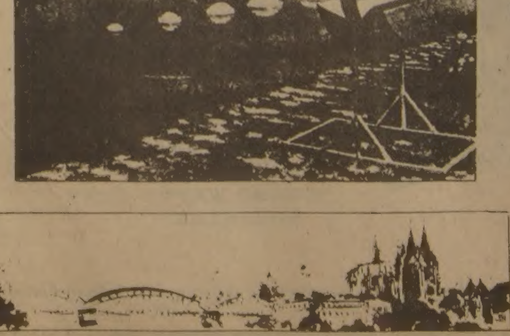
(양로원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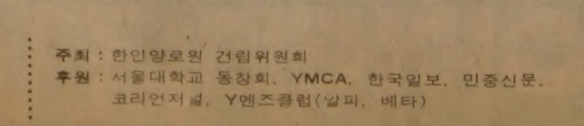
이양원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신인 예술상 수석상 수상
—국전 특선5회
—국전 문공부 장관상
—국전 입선8회
—각종 초대전 출품및 개인전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일연회 회원

유종민
—서울미대 조각과 졸업
—서울대 교육대학원 졸업
—각종 초대전 출품
—국전6회 입선
—제3회 개인전 가짐
—각종 미전 심사위원
—현 관동대학 미술교육과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INSEA한국회원

조용각
—서울 미대회화과 졸업(서양화)
—신인 예술 장려상 수상
—각종 국제대회 초대전 출품전및 개인전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추계예술 조교수
제3구룹회원

권승연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1회특선)
—창작미협전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제3구룹전
—한국현대 도자기 삼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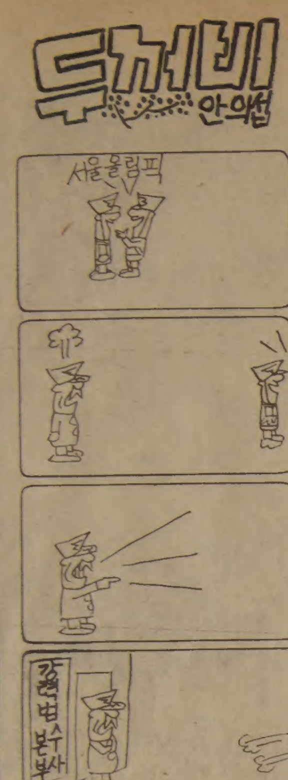
장 소 : THE SHERATON CENTRE WINDSOR ROOM
(특설화랑) 2층 동쪽 끝
시 간 : 10월 8일(목), 9일(금) : 오후6시~9시30분
〃 10일(토), 11일(일) : 〃 2시~ 〃
〃 12일(월), 13일(화) : 〃 6시~ 〃

주최 : 한인양로원 건립위원회
후원 : 서울대학교 동창회, YMCA, 한국일보, 민중신문, 코리언저널, Y멘즈클럽(알파, 베타)

한풍렬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서울미대 대학원 졸업
—대학교 강사
—관인 모뉴망 미술학원장
—경기도전 수석상 수상
—국전특선1회 입선6회
—각종 미전출품및 개인전2회
—중앙미술 내상전 장려상 수상
—현 한국미협회원, 일연회 회원

장연탁
—서울미대, 온타리오 미대졸업
—국전출품
—낙우회 회원전 출품
—이태리 마리노(로마)국제 비엔나레 출품
—이태리 카라라 국제조각 심포지움 참가
—이태리와 카나다에서 4번 개인전
—현 캐나다 조각협회 회원
●장씨 작품이 영구소장된 화랑
이태리 미라노 현대미술관
베니스 누오브 스파지오 화랑
토론토 가보 화랑
캐나다 조각협회

나영삼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
—한국대상전 출품
—제1회 한·일 작품 교류전 출품
—미술회관 초대전 출품
—창작미술협회전 출품
—한국미협전



투숙한 旅館담벽서 피살朴양 毛髮발견

海外연수同期生 張군 犯人단정

拘束수사 檢察에 품신

"여관서 동침후 나와서 다투다 殺害" 自白

上京여대생

◇尙恩양이 張군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있다. 사진은 지난여름 미국연수후 귀국길에 호놀룰루 공항에서 찍은것.

상경여대생 朴尙恩양 살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5일 朴양의 해외연수 동기생 張慶洙군(21·K대3년)을 범인으로 단정, 폭행치사로 구속 수사할것을 검찰에 품신했다.

경찰에의하면 張군은『사건당일인 지난달 18일밤 朴양과함께 현장옆 三井莊여관에서 동침한후 밖으로나오면서 朴양이 책임질것을 요구해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는 것인데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朴양의 오른쪽 귀밑뺨에있던 치흔이 張군의치열본과 동일하다」는 최종감정결과를통보받아 張군을 일단 진범으로 본 것이다.

경찰은 또 張군이 朴양과 다투면서 朴양의 머리를 부딪치게한 三井莊여관담벽에에서 찾아낸 모발의혈액형이 O형으로 朴양의 것과 동일한 것임도 확인했다.

張군은 경찰에서동침후 여관을 나오면서 朴양이 『책임을지라』고 말해『처녀도 아닌데 무슨책임이냐』고 반박, 다투다 담벽에 朴양의머리를 찧고 소리를 지르는 朴양의 입을 막으면서 인조석더미로 끌고가 목을 조르다보니숨졌으며사망한것을알고 당황, 인조석더미속에 파묻었다고 진술했다는것.

그러나 張군은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강도를 위장하기위해 빼낸 朴양의 3돈쭝 짜리 금반지에 대해서는『청바지주머니에 넣었으나 집으로가다 잃어버렸다』『한강에버렸다』는등 횡설수설하고 있으며 경찰도 이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날하오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치흔감정통보서와 朴양의 모발을방증으로 검찰에 지휘를 품신한 경찰은 『張군이 물증을대지않고있지만 범행경위를 명확히 진술했고 정황증거가 있기때문에 구속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명백한 살의가 있었던것이 아니고 서로다투다 감정이 격화돼 결과적으로 살해하게된 정황을 인정,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로 죄명을 바꾸기로 했으며 시체를 암장한 혐의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金반지와 電話건女人 어디에…

일단 매듭지은 警察, 공소유지여부 고민

愛咬치흔=張군齒列本이 現在의 증거

毛髮은 法廷서 心證형성영향 기대뿐

億臺의 張군부모 "家産날리더라도 法廷투쟁" 다짐

朴尙恩양 피살사건은 5일 사건발생 17일만에 일단 매듭이 지어졌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못해 尹景花씨 피살사건의 재판같이 될 공산이 크다.

경찰은 張慶洙군을 진범으로 단정하는 근거로 ▲범행을 자백했으며 ▲朴양의 뺨에 있던 치흔이 張군의 치열본과 동일하고 ▲張군의 자백에 따라 三井莊여관 담벽에서 朴양의 모발을 찾아낸 것등을 들고 있다.

이중 경찰이 가장 유력한 증거로 내세우고있는것이 애교(愛咬)로생긴 치흔 감정결과. 경찰은 처음부터 이치흔이 뚜렷한것으로보아 피살직전 생긴것으로추정,용의자들의 치흔본을 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었는데 5일 「이치흔이 張군의 치흔본과 동일하다는점에 이의가없다」는 최종감정결과를통보받은것이다. 이 치흔은 張군이 朴양을살해하기 직전三井莊여관204호실에서 동침했다고 자백한일등과 경찰의 추정과 일치한셈이다.

치흔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지문에 비해 다소 약하지만 법의학적관점에서 증거능력이 있다는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관계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며 실제 유죄판결의증거로 채택된 전례도있다.

또 여관담벽에 朴양의머리를 부딪게 할때 시멘트벽에 붙은 모발을 張군의 진술에 의해 찾아낸것은 모발이 범죄공용물은 아니기때문에 직접증거능력은 없지만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심증형성에영향을 줄수있는 충분한 자료가 될수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

그런데 경찰이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범행자백과 치흔감정결과에따라 張군이 범인이라는심증을 굳히고서도 구속영장신청을 미뤄온것은 목격자나 반지등 확실한 물적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그동안 張군의 부탁을받고 전화를 걸어준 20대여인과 사건현장 부근까지 두사람을 태워다준 택시운전사를 찾기위해 광범한 탐문수사를 벌였다.

또 張군이 범행전 투숙했던 三井莊여관 종업원중에서도 두사람을 목격한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으며 여관숙박부에도 기록이없어 방증확보에 실패했다.

張군이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반지의 행방을 찾기위해 현장옆 풀섶과 하수도의 물을 모두퍼내고 수색을 했으나 반지를 찾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張군이 범행후 현장에서 新盤浦집까지 뛰어돌아갔다는 귀가로를따라 여러차례 수색작업을 폈으나 이 작업은 애초부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었던것이었다.

설령 현장주변이나 귀가로에 떨어진 반지를 찾아냈다하더라도 이것을 범행과 직접 연관지을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경찰수사가 결정적 증거확보라는 벽에 부딪쳐 진전을 보지못하고 고심하게되자 사건이경찰수사단계에서는 해결되더라도 공소유지에 문제가있을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시작, 경찰의고민은 더해졌다.

특히 張군의 아버지는 大邱에서 「D펌프」를운영하며 D고교동창회장을 맡고 있는등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는데 張군이 가장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있고 범행을 자백했다는것이 보도되자 『전재산을 들여서라도 아들의 결백입증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투쟁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던것.

5일 경찰은 張군을 구속수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서도 곧장 검찰에 구속영장신청을 하지못하고 수사간부가 경찰고위간부에게 직접 결단을 구하러 찾아가 장시간 토의하는등 고민하는 모습이역연했다.

아뭏든 張군에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수사케 된다 하더라도 물증수사는 계속되겠지만 끝내 반지를 찾지못하고 기소될경우 재판과정에서 자백을 번복할 가능성등 복잡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姜秉泰기자】

犯法者 해외逃避·국내潛入 속수무책

"犯人引渡협정 締結시급"

인터폴기대難 美·日과 우선

移住확대·旅行 자유화 惡用

大檢건의

대검은 해외이주확대와 해외여행자유화조치및 88년하계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리게되는 것등을계기로 범법자의 해외도피와 국제범죄조직의 국내잠입등 해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비키위해 미국·일본등 해외거주 동포가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여행하는 국가와 범인인도협정을 체결할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검찰의 이번건의는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수사기관과 협조체제는 갖추고 있으나 범인인도협정을 맺지않고있어 해외도피범죄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재를 가할수없고 또 국내에 잠입하는 외국범죄인도 상대국의 희망에 맞춰 처리할수 없기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한탕후 번개出國、豪華생활

대부분雙務로 유럽15國은多者협정 海外범죄 뿌리뽑아야

범죄인 인도란 범죄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인으로 지목되는 자를 발견한 국가가 그 범죄인 또는 피의자가 자국에서 범죄를범했다고 주장하는 국가에게 그범죄인 또는 피의자를 인계하는것인데 범죄인 인도에 관한 협정은 유럽15개국이 가입돼있는 유럽 컨벤션같은 다자간협정과 2개국간에체결하는 쌍무협정등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어느 종류의 협정도 아직 맺지않고있다.

이때문에 국내재산을 소문없이 정리하거나 거액의공금을 빼돌린뒤 해외로 달아나버리는등의 해외도피 범죄를 보고도 도피국에대해 신병을 요구할수없어 지금까지 속수무책였다.

가까운 예로 지난3월23일 서울신탁은행 대리 元永均씨(37)가 은행돈 2억3천만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달아난것을 비롯 지난7월20일 계획적으로 5억여원의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한 강모씨를 찾아 뉴욕까지 가 납치극을 벌였던 權五春씨(39)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국내수사력의 영역을 벗어나버린 범죄인을 개인이 찾아내 돈을 받아내려다 물의를 빚은 것으로 범법자의 해외도피가 낳은 대표적인후유증이었다.

이밖에도 전과12범의 소매치기가 무역회사 사원으로위장해서 미국으로 달아났고, 해외취업사기꾼이 8억원을 사취해서 아프리카로 도피했는가하면 심지어는 재판에계류중인 불구속피고인 12명이 이민이나 취업의 형식으로 해외로 달아났음이 지난해 서울형사지법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었다.

▲부도 ▲겟돈을 챙기거나 ▲부수표를 남발한뒤는 물론 ▲고객의 예금을 가로채며 ▲근로자의 노임을 횡령하는한편 ▲탈세등으로 거액의외화를 밀반출,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도 전혀 제재를 가할수 없는것은 바로 범죄인 인도협정이 안맺어져 있기때문이다.

결국 법제도의 맹점이 「한탕해서 번개처럼 출국」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낳게하고 해외도피를 전제로한 사기와 범법의 악순환이 계속되고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펴고있는 국민 해외진출 확대정책을 악용, 범법자의 해외도피가 더욱 성행할것에 대비한 범죄인 인도협정 체결노력이 필요하다는게 검찰당국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대검 당국자는 이제까지우리나라가 협정을 체결하지않은것은 ▲법률전문가들의 개발사회 적응노력이 미흡하거나 무관심했고 ▲현안문제가 대두하지않아 필요성을 인식못한데다 ▲미국·일본등과는 朴東宣사건등으로 미묘한 관계를 갖게 됐었기때문이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최근들어 국제사회가 시간적, 거리적으로 축소돼 범죄인들의 국제적이동및 범죄의 광역화현상이 가속적으로 증가되고있고 우리나라도 해외여행이 자유로와짐에 따라 범죄인들의해외도피가 횡행 용이해져 그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범죄인 인도협정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치안본부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협조체제를 강화, 해외관련범죄에 대한 적극수사태세를 갖추고 있으나 인터폴은 정보와 자료교환및 범죄인소재탐지정도의 도움만 줄뿐이다.

법무부도 해외진출확대방침이 발표된 직후 범법자들의 해외도피를 봉쇄하기위해 공판이 계속중이거나 수사를 받고있는 사람가운데 해외도피우려가 있는자는 범죄혐의 리스트를 작성, 출국금지등 조치를 취하고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지않으면 국내범죄인의 해외도피는 물론이고 외국의 범죄자들의 잠입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할수 없다』면서 『우리나라와 왕래가 빈번한 미국·일본등과 우선적으로 범죄인 인도협정을맺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1백여개국과 범죄인 인도에관한 쌍무협정을맺고있으며 프랑스도 1백20여개국과 다자간 협정을 맺고있는등 세계각국이 대부분 이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崔奎植기자】

一家族가스中毒…2명숨져

보일러 고친뒤 두방의다섯식구

母子참변 父女중태

5일상오9시30분께 서울 永登浦區新吉6洞 4142 文良均씨(37·운수업)집안방에서잠자던 文씨와부인 金玉基씨(35)、건넌방에서자던 외아들 鍾仁군(10·大方국교3년)、장녀慶順양(14·江南여중2년)、2녀 旼貞양(11·大方국교4년)등 일가족5명이 연탄가스에 중독、金씨와 鍾仁군은 숨지고 文씨와두딸등 3명은병원에 옮겨졌으나 중태다。

경찰은 文씨가 1개월전에 지하실에 설치한 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바꾼뒤 사고전날인 4일 하오 2시께 『비가와 불을 넣어야겠다』며 연탄불을 처음 피웠다는 지하실에 세든 黃玉女씨(21·여)의 진술에따라 文씨일가족이 연탄불을 피우고 자다 갈라진 방바닥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돼 변을당한 것으로 보고있다.

2歲 어린이 물통에 溺死

5일하오5시20분께 서울 冠岳區新林9洞251의18 金昌燮씨(30·인쇄공)집 마당에서 金씨의2남 鉦基군(2)이 플래스틱 물통(높이 40㎝, 직경 45㎝)에 빠져 숨졌다.

暴風雨만난 韓國화물선 시스터스타號

蘇、領海대피를 許容

【東京4日AP=聯】승무원27명을 태우고 캐나다에서 일본의 나고야(名古屋)로 향하던중 일본북쪽 홋까이도(北海道)의 구시로(釧路)북동쪽 1천4백40㎞해상에서 폭풍우를 만난 1만6천9백53톤급 한국화물선 시스터스타號가 4일 캄차카반도의 소련영해로대피하도록허용받았다고일본해상보안청이 밝혔다.

보안청관리들은 국제목재화물 수송선인 시스터스타號가 日해상보안청에 긴급구조신호(SOS)를 보내면서 캄차카반도 남동쪽 크로노트스키灣으로 대피할수있도록 소련의 허가를 얻어줄것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올림픽유치대표단 일행6명(전열)이 金浦공항에 도착,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전열좌로부터 李源京KOC고문 曺相鎬KOC위원장 朴英秀서울시장 鄭周永올림픽유치준비위원장 李元洪KBS사장】

"최소投資로 最大효과"

五輪유치단 歸國회견…朴시장밝혀

올림픽 서울유치단 단장 朴英秀서울시장은 『88년도 서울 올림픽은 국민들의 협조와 노력에 의한 알뜰한 최소한의투자로 가장알뜰한 대회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朴시장은 4일 하오 대표단 일행과함께 金浦공항에 도착,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올림픽개최에 따른소요경비를 22억달러(1조5천억원)로 계상했으나 이중에는 현재 서공중인 지하철 건설비등 16억달러가 포함되어있어 직접 경비는 경기장완공、대회본부및 부대시설 건설에 6억달러가 소요될것으로보여 시민부담이 크게늘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朴시장은 특히 『많은 전설업계대표들이 선수촌등을 순수민간자본으로 건립, 임원선수의 숙소로 사용케한다음 대회가 끝난후 일반에 분양토록 하겠다는 제의를 이미 서울시에 해오고 있다』고말해 올림픽관련 시설에 민간자본을 대폭 유치할 뜻을 비쳤다.

農業經濟論文분야 韓人교수最優秀賞

캐나다와 미국에 거주하는 3명의 한국인 농촌경제학자가 최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캐나다농업경제학회는 지난9월 온타리오주 세인트캐더린소재 브록대학교에서 열린 81년도 총회에서 80년도에 발표된 농업경제분야의 최우수논문상을 사스카치완주 리자이나대학의 권오율박사와 연방정부농업경제부의 경제연구관 엄인호씨가 공동작성한 논문 「주별로본 평지씨(Rapeseed)의 공급모델과 이에따른 정책적고려」를최우수논문으로 선정했다.

한편 미국 노드·다코타주립대학교의 구원회박사는 7월에 열린 81년도 미국농업경제학회에서 다른 2명의미국학자와 함께 최우수논문상을 받았다. 【터론토支社】

◇권오율 ◇엄인호 ◇구원회

地方短信

人參 4百kg 수확 羅州洞江面첫소득

【錦城=聯】전남羅州郡洞江面大田里에서 4백kg의 인삼을 처음 수확, 4백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지난79년 3월중순께 이마을 金鍾錫씨(43)와 張文洪씨(46)등이 각각 1백평씩 모두 2백평에 인삼을 처음 이식, 1백평당 2백kg씩 수확한것.

한국일보 詩壇

가을은 가는 거지요

浪 丞 萬
舊名 承 萬

가을은 오지 않고
슬쩍 그 꽃잎들의
그림자를 스치고 가는 거지요.

가을은 구름밖을 떠돌다가
한밤중 가슴속에 들꽃을 피워놓고는
반갑게 오지를 않고
슬픈 나그네로 가는가봐요.

가을은 그렇게 죽음으로
안개같은 노을같은 죽음으로 가는건가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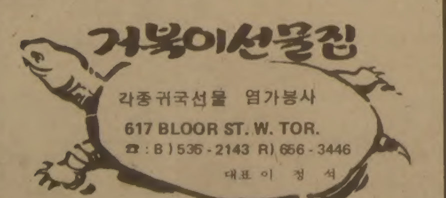
가을은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밖이나 댓돌앞, 장독간, 뜨락을
서성이다가
슬픈 나그네로 서성이다가
훌쩍 가는거지요.
죽음처럼 훌쩍 가는 거지요.
한가위 다음날에나 뒤틀린 다리를 끌
고
어머니 당신의 幽宅에 올라
바람에 꺾인 들국화 꽃가지에
모로 쓰러져 절하며
<어머니 나를 데려가 주사이다.
어머니 이 不具의 몸을 어서 데려가
주사이다>
쏟아놓는 눈물에 가을은 떠나가지요.
가을은 기쁘게 오지를 않고
가을은 정녕 만남이 아니고
헤어짐이지요.
죽자 죽자 가을엔 죽자.
팔다리는 뙤약볕에
비틀린 허수아비 憔悴인데
옴두라진 나무등걸에
찬서리바람 차단히 쌓이고
가을은 젊은 잠으로
깊이 잠들지 못하고
눈 한숨의 늪은 잠으로
찰 찰 넘치다 밟아버리는 새벽이지요.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아름다운 피부는 여인의 소망"
○ Mary Kay는 바로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신비와 매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기미 여드름, 모공이 커서 화장에 자신없는 분,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 고국 방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특별봉사 하겠으며,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 2 MEADOWGLEN PLACE # 202A, SCARB. ONT M1G 2V6
☎ : (B)438-6440 (R) 439-1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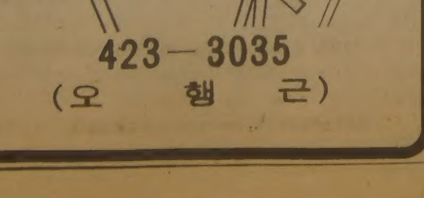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스파다이나 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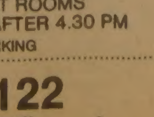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6-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텍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30AM~6:00PM ●월-토 11AM-7PM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 368-4215. 368-0114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운 전 교 습

423-3035
(오 행 근)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유교精神실천·佛敎사상포교가 主流

◇우리겨레의 영원한 표상인 世宗大王。올부터 한글날 기념행사가 정부주최로 화려하게 열린다. (사진은 雲甫 金基昶화백이 그린 世宗大王초상화)

5백35돌한글날기념 오늘 學術강연회

世宗大王의 「文學사상」

思想전달 文學이용 가장效果的

고려사·용비어천가·월인천강지곡 편찬

政治이념은 安民保國이 최우선

9일은 世宗大王이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하신지 5백35돌이 되는 한글날.

이날을 맞아 정부에서는 世宗의 사상과 치적을 새 시대문화창조의 지표로 삼기위해 한글날 기념행사를 올부터 국가적차원에서 각 市道別로 개최함과 동시에 한글날을 전후하여 각종강연회·세미나·백일장 등의 문화행사를 베푼다.

사단법인 世宗大王기념사업회는 한글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6일하오2시 世宗문화회관대회의장에서 世宗大王의 치적을 기리는 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강연회에서 박지홍교수(釜山大·국문학)는 「世宗의 문학사상과 출판문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世宗의 평생은 유교정신의 실천과 불교사상의 포교라는 두명제로 압축될 수있다고 밝히고 이를 대변하는것이 하나는「용비어천가」요 다른 하나는「월인천강지곡」이라고 지적한다.

世宗임금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백성이었다. 백성의 不信을 씻어 주고 백성을 교화하는것, 이것이 世宗 정치의 중심사상이었다. 世宗은 이일을 위해 「용비어천가」를 편찬할결심을 한것 같다고 박교수는 말한다.

박교수에 의하면 초기의 世宗이 가장힘들인것은「고려사」의 편찬이었으며 그것은 엄청난 사업이었다. 이의 마무리로서 李氏의 開國혁명은 정당화되었으나 世宗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용비어천가」의 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본다면 世宗의 「고려사」편찬의 속뜻은 「용비어천가」에 있었음을 알수있다는것이다. 즉 世宗은 『사상의 보급은 문학을 통하는것보다 더빠른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교수는 「용비어천가」는 朝鮮王朝창업을 영웅서사시로 과시하려는 일대교향악이었다고 말하고 世宗은 이렇듯 문학의 위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것이라고 강조한다.

박교수는 또 世宗은 만년에가서 인간으로서의 한계선에 부딪친것같다고 말하고 그래서 자신의 고독을 부처님께 기대게된것이라고 설명한다. 때문에 世宗은 포교정신을 나타내면서 그상대를 백성으로 확대해 나가려했던것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世宗은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면서까지 대궐안에 절을 지어 안식처를 마련하고 「월인천강지곡」을 짓는다. 신회의 세계를 그린 「월인천강지곡」의 출판역시 많은 반대에 부닥친것같으나 불교속에 영원한 진리가 있음을 깨달은 임금은 이를 후세에 전하기위해 이를 지은것같다는 추측이다.

박교수는 두시간의 편찬과 그내용을 통해 世宗의 문학사상을 다음과같이 짐작해볼수있다고 논한다. 즉①한나라의 문학작품은 그나라의 말로 표현돼야하며, 그러자면 그나라 글자로 적어야한다.②문학은 다듬어진 문장으로 묘사돼야한다.③문학의 묘사에는 군더가 없어야하며 그것은 생략법보다 나은것이었다.④훌륭한 문학작품에는 차원높은 주제가 먼저 설정되어야한다.⑤훌륭한 문학작품을 쓰려면 풍부한 자료가 수집되어야한다.⑥작품의 줄거리는 재미있어야 한다.⑦참작은 비유보다큰것이없다.⑧사실의 강화와 전달은 문학보다 빠른것이없고, 문학은 이를통해 상대를 감화시킨다는것등으로 요약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문태교수(서울大행정대학원)는 「世宗의 정치철학」에서 『世宗의정치철학은 한마디로 유학사상을 기본이념으로하는 안민보국의 정신을 토대로하고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반드시 유교적교리에 한정되어 있지만은 않았으며 민본주의 도화정신, 尙古주의적 법치사상에 기초를 두었고 이같은 근본이념을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禮樂을 중요시하고 실용주의와 주체성, 그리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심혈을 기울였던것이라고 지적한다.

김교수는 또 世宗의 정치철학의 기조로서 민본주의는 한민족고래의 遺制로서 世宗의 인도주의적 인간존중사상과 訓民사상등이 서로 융화됐다고 말한다.

이와함께 世宗에게는 道學정신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의 도학정신은 三綱의道와 같은 개인의 도덕성이나 가족윤리적성격을 넘어서 사회와 역사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綱常論的 義理論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世宗은 明나라에대한 事大로 일관했으나 자주정신과 주체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평가된다고말한다. 【丁 기자】

나의 이력서

〈題字·尹 敎 暎〉

윤치영 (62)

李박사의 첫敗北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48년7월말, 취임한지 며칠 안되는 李承晩 대통령이 제헌국회에 나왔다. 새국무총리임명승인을요청하기위해서였다. 국회에 나올 때까지도李대통령은 누구를 국무총리에 임명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내의 중론은 金性洙를 국무총리에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었다. 무슨 말이 나올까 싶어 조용해진 가운데 모두들 李대통령을 주목했다.

『국무총리의 책임을 맡을 분으로는 金性洙 申翼熙 趙素昻 이세분이 가장 중망에 올랐읍니다』 李대통령은 그런식으로 서두를 꺼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들중 한명을 임명하겠구나 생각했다. 李대통령은 3人의 인격을 추켜가며 훌륭한 인물들이라고 말했으나 그중 누구를 국무총리에 임명하겠다는 말을 하지않았다. 다른 인물을 지명하기위한 反語的 표현의 序說이었던 것이다. 金性洙씨의 경우『그분의 인격과 애국심과 寬厚한 인품등은 누구나 추앙하지 않는사람이 없을줄 나는 믿으며…』라고 말했으나 정작『그러나, 나중 발표될때 아시겠지만나는 金性洙씨에게 보다 긴요한 책임을 맡기려는 것입니다』라고말했다.

金性洙등 제치고 總理에 李允榮지명

議員들 놀란기색…百32票대59로 否決

그렇다면 누굴 시키겠다는 건가.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런뒤 李대통령은 李允榮의원을 국무총리에 임명한다고 선언했다. 놀라는 기색들이 역연했다. 그러나 짐작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李대통령은 앞서 국무총리엔 以北동포에 대한 배려도 할겸 남북통일의 상징으로 以北의 민족지도자를 앉히고 싶다는 뜻을 시사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李대통령은 李允榮의원을 임명했던 것이다. 물론 나는 內定명단을 보고 사전에 알고 있었다.

李대통령은 朝鮮民主黨위원장인 古堂 曺晩植선생을 北의 상징으로 머리속에 그렸으나 古堂이 北에 갇혀 있으니 그대신 死線을 뚫고 넘어온 朝鮮民主黨부위원장인 李의원을 국무총리에 임명했던 것이다. 알고보면 李의원을 鐘路甲區에서 출마토록 한 것도 李박사의 사전배려였는지 모른다. 李박사는 국회開院때도 그에게 각별한 배려를 했었다.

제헌국회가 개원하던 날, 임시의장에 선출된 李박사는 목사출신인 李允榮의원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래서 국회에선 뜻밖의 기도가 울려졌다. 일부에선 異議를 제기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들어있는데 하필이면 기독교式으로 하느냐는 항의였다.

李의원은 덕망이 있고 점잖은 분이다. 그는 명망이 있는 목사로서 20여년간 교회에 몸담아 오면서 美國에선 감리교회의 監理師까지 지냈다. 그는 해방이듬해 겨울 소련軍政의 탄압을 피해 초대 총무처장인 金炳淵목사와 함께 越南했다.

표결결과 李允榮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승인안은 1백93명의 在席의원중 찬성59표, 반대1백32표로 否決되고말았다. 당시 국회의 主流를 이루고있던 韓民黨系의원들이 金性洙씨가 총리지명에서 제외된데대한 반발로 否票로 李박사에게 一擊을가한것이다.

李대통령의 의도는 빗나가버렸다. 1주일전만해도 자신에찬 압도적인 표를주어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회가 이번엔 커다란 실망을 안겨준것이다. 국무총리임명승인안의否決은 李대통령에대한 첫번째의 정치적 시련이자 앞으로 정치파동의 가능성을 암시해준 신호였다.

국회에서 李대통령은 국무총리 임명을 발표할때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李允榮의원 자신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李允榮씨자신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그날아침 미리 통고를 받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뭏든 李박사에게 否決은충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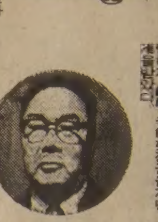
국회는 대통령선출때 李박사에게 절대적인 신임표를 주었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존중해줄 것으로 낙관을 했었던것이다.

李대통령은 2차로 國防에 내정한 鐵驥 李範奭을 국무총리에 임명, 국회의 인준을 받았다. 鐵驥는 李允榮의원의 苦盃를감안, 미리 桂洞 金性洙씨宅을 찾아 認准에 협조를 요청하기도했다.

사실鐵驥의 총리임명은 나로선뜻밖이었다. 나는 組閣추천명단중 國防에 池靑天, 李範奭양인을 복수로 쓰면서도 李範奭보다 독립군의 선배인 池靑天장군이 국방장관에 더 적격이라고 생각했다.

李範奭의 국무총리 임명승인안표결에서는 非韓民黨계의 의원들이 표를 많이 몰아주었다. 그에게는 국회안에 숨어있는 만만찮은 조직이 있었다. 李範奭은 독립운동의 巨將으로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국회에서의 표의 승리는 인물보다는 조직의 승리였다.

이미 제헌국회때부터 조직이 없는 인물은 뛰어나다 하더라도 설땅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하나의 장점이자 또다른 헛점이기도 했다.



◇李대통령은 초대국무총리에 李允榮의원(上)을 내세웠다가 첫敗北를 당하자 鐵驥 李範奭장군을 지명, 認准을 받았다

【고침】 「나의 이력서」50회중 민주의원 金明濬은金朋濬으로, 60회중 총무처장 許政은 金炳淵으로 각각 바로잡습니다.

오늘 루마니아對決

世界청소년蹴球 緖戰서 伊대파

【멜번=千一平특파원】 제3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대표팀은 6일하오5시45분(한국시간) 올림픽 파크경기장서 강호루마니아와 예선B조 2차전을 벌인다.

한국은이경기서이기거나비길경우8강진출이가능하다.

한국은 3일하오열린 예선 B조1차전에서 이탈리아와 맞서 崔淳鎬가 2골, 郭星浩 李敬男이 한골씩을 집어넣어 4-1로 대승했다.

예선 B조의 강호인 브라질과 루마니아는 첫경기서 1-1로 비겼다.

◇전적

▲B조

한국 4-1 이탈리아
(1승) (1패)

브라질 1-1 루마니아

▲A조

카타르 1-0 폴란드

韓國, 데杯本選탈락

敗者戰서 완패

【산레모(이탈리아)4日聯合】 韓國은 4일 이탈리아의 산레모에서 속행된 82년도 데이비스컵 테니스 본선진출 결정전 이틀째 복식경기에서 金春浩 宋東煜조가 이탈리아의 파나타-베르톨루치조에 3-0으로 패해 나머지 경기에 관계없이 본선탈락이 확정됐다.

그러나 韓國의 金春浩는 이날 복식이 끝난뒤 속행된 단식에서 이탈리아 국내챔피언인 코라도·바라주티를 접전끝에 3-1로 꺾어 이탈리아 관중들을 놀라게했다.

마지막 단식인 田昌大-오를레포전은 5일로 연기됐다.

韓國은 내년 데이비스컵대회 본선에 오르기 위해서 지역예선을 거쳐야 하게됐다.

◇제2일

파나타·베르톨루치 3 (6-2 7-5 6-4) 0 金春浩·宋東煜

金春浩 3 (6-2 6-6 8-2 2-6 6-1) 2 바라주티

歷代 IOC委員의 묘소參拜

曺相鎬회장 경과보고

曺相鎬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은 5일 李起鵬 李相伯 張基榮씨등 역대IOC위원들의 묘소를 참배, 88년도 하계올림픽 대회의 서울 유치를 보고했다.

모둔풀이 위의 生 <219>

趙善作 作 / 金光培 畵

돌개바람 불다 ⑳

그들의 목적지는 내가 성급하게 단정했던 바다로서울이 아니었다. 일행은 천안에서 열차를 내린 것이다. 혹시 그들이 대구나 김천, 또는 영동이나 대전등 중간역에서 내릴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나는 어렴풋이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렴풋이 했던 추측에 불과했고, 열차가 역에 섰을때 나는 그리 대단한 주의력을 집중시키지는 않았었다. 때문에 열차가 천안역 구내에 멎었을때도 나는 그저 무심코 플랫폼을 내려다 보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들일행이 내 눈 앞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플랫폼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너무도 놀라 잠시·가만히 있었다. 그랬다가 다시 두 눈을 부릅뜨고 그들 네사람의 일행을 확인했는데, 그때는 이미 열차가 덜커덩 하고 출발을 시작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를 뛰었다. 승강구에 이르자 열차는 이미 만만치 않은 속력을 얻고 있었으며, 뛰어 내리기에는 위험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잠시 나는 망설였던 듯싶다. 망설이는 짧은 동안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가려는가, 어디에 여장을 풀기 위해 천안역을 선택했는가에 대해 생각했고, 일신의 안전 관계지인 운명을 떠올렸으며, 은양이라면 구태여 위험을 무릅쓸 게 아니라 다음 역, 평택이나 수원에서 내려 되짚어 내려와도 그들을 추적하는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나는 재빨리 했었다. 그러나 나는 아주 잠깐동안만 그런 생각을 했을뿐 열차에서 뛰어 내렸다.

내가 뛰어 내린 곳은 플랫폼이 끝나는 곳이었고, 서 있는 무개화차 밑에 나동그라져 있었다. 잠깐동안 정신을 잃었었다는 사실을 숨길필요는 없겠다. 승강구에서 몸을 날린 순간 이미 나는 내 정신이 아니었다. 때문에 내 몸이 어디에 어떻게 충격과 무리가 가해졌는가 알 수 없었다. 다만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오른쪽 팔과 무릎, 그리고 손바닥에 상처가 나 있는 것을 차례로 발견했을뿐이었다.

나동그라진 곳에서 나는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증 때문에 나는 몸을 균형있게 세울수가 없었다. 나는 다시 주저앉았고 그때 어둠속에서 역원(驛員) 하나가 내게로 다가왔다.

『무슨 일이오? 다쳤소? 뛰어 내린 거요?』

몇 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던지면서 역원은 내 겨드랑이를 부축했다. 나는 그의 부축으로 가까스로 일어설 수 있었다. 오른 쪽 팔은 쓰렸고, 무릎에서는 제법 많은 피가 흘러 바지의 천에 배었다. 손바닥에서도 피가 흘러 옹고되었으며, 칸델라등으로 상처를 비추어 본 역원이 『많이 다쳤구려. 걸을 수 있겠소?』하고 근심스런 목소리를 냈다.

아뭏든 나는 빨리 걸어 일행의 뒷모습을 붙잡아야만 했다. 나는 염치불구하고 역원을 부축해서 긴 플랫폼을 걸었고, 출찰구 쪽으로 나왔다. 출찰구는 이미 닫혀져 있었다. 출찰구 건너편의 광장은 텅 비어 있었으며, 열차에서 내린 얼마 안 되는 승객들은 이미 역에서 멀리 벗어난 뒤였다.

출찰구 앞에서 나는 내 티킷을 역원에게 주었다. 티킷을 들여다 본 역원이 『아니, 서울까지 갈 아가씨가 왜 여기서 뛰어내린 거요?』라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대신 나는 그의 부축을 풀었으며, 가까스로 균형을 유지하고 섰다.

『괜찮겠소? 갈 수 있겠어요?』

역원이 물었고, 나는 끄덕여 보였다. 그가 사무실 안의 다른 역원을 불러 출찰구를 열어주었다.

流星의 賦 <200>

李炳注 作 / 李友範 畵

明暗 ⑳

『살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텐가』

이영이 차갑게 물었다.

『그놈이 돌아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어떻겠읍니까』

계남이 말했다.

『자네가 그놈을 처치하겠다는 말인가?』

『그러하오이다』

그러자 이영이 어이가 없다는듯 웃었다.

『홍공은 아직 어려』

『어리니까 그놈을 처치할 수 없을 거란 말씀입니까』

『아직 어린 탓으로 견식이 부족하다는 말일세』

『나라에 해독을 끼칠 놈을 처치하겠다는게 견식의 부족입니까?』

계남의 말엔 분연한 기가 서렸다.

『생각해보라구. 조정에 복무하고 있는 군관이 타국의 사신을 죽였다고 하면 다음 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사신의 신분으로 남의 나라를 욕하는 그런 행동엔 마땅히 응징이 있어야할 것이 아닙니까. 아까 협님도 말하지 않았소이까. 그런 자를 처치할 기골 있는 자가 없다고 보면 우리를 깔볼것이라구요』

『그놈이 하는 짓이 양편에 칼날을 달고 있다는 뜻으로 말한거여. 그 술책에 말려들지 않을 방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어. 놈을 죽이거나 하면 그야말로 놈의 술책에 빠져드는 셈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겁니까』

『그걸 생각해보자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 자네가 관심을 솔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네. 먼저 예조(禮曹)에서 감당할 문제이니까』

이영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홍계남의 피는 끓고 있었다. 어떤 수단으로서도 귤강광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방도를 강구해야 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에 이영의 말이 있었다.

『자네는 자중자애해야 하네. 얼마 안있어 자네를꼭 필요로하는 일이 생길걸세. 사람이란 옳은 일이라고 해서 죄다 할 수는 없는거여. 게다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얼마 되질 않아. 장부일사(丈夫一事)란 말이 있으니 장부는 한가지 큰일만 하면 족하다는 뜻이야. 이일, 저일 걸머들었다가 한가지 일도 옳게 못하는것보다는 힘을 기르고 때를 기다려한가지 큰 일만 하면 되는 걸세』

그래도 홍계남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귤강광이란 놈의 가슴을 서늘하게 해 주어야 한다. 왜놈이 우리를 깔보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무슨 수를 써야한다〉

는 생각이 머리 속에 빙빙 돌고 있었다. 돌연 잠잠해버린 홍계남의 태도로 미루어 이 자가 반드시 일을 내고야 말것 같다고 추측한 이영은 갖가지 사례를 들어

『장부가 가장 기(忌)해야 할것은 경거망동(輕擧妄動)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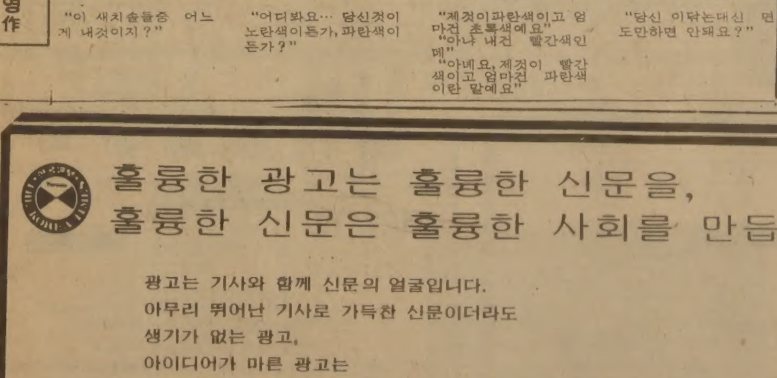
하는 말을 몇번이나 되풀이했다.

그리고

『자네는 기필 명장(名將)이 될 상을 가졌으니 앞으로 병서(兵書)를 많이 읽어야 할거란』

며 손오병법에 언급(言及)하고 그들의 인간됨과 생애를 설명하는데 홍계남은 대단한 흥미를 느꼈다.

블론디 —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이 새치솔들중 어느게 내것이지?"

"어디봐요… 당신것이 노란색이든가, 파란색이든가?"

"제것이파란색이고 엄마건 초록색예요" "아냐 내건 빨간색인데" "아녜요, 제것이 빨간색이고 엄마건 파란색이란 말예요"

"당신 이닦는대신 면도만하면 안돼요?"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새 캐나다 저축채권

19½% 첫 해

새 캐나다 저축채권은 첫해에 19½% 의 이자를 받는다. 나머지 각 6년간 만기일까지의 이자율은 최소한 10½이상이다. 저축채권은 결코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캐나다 저축채권은 좋은 이자율을 당신에게 제공할뿐아니라, 오늘과 미래를 위한 강하고 안전한 투자의 유일한 두구가 된다.

과거분 시리즈 상환금 증가

만기가 안된 모든 캐나다 저축채권 상환액은 1981년11월1일부터 첫해에 19½% 로 증가 되었다. 매 다음년도부터는 최소 10½% 이상으로 계속된다.

1977년 이전분 씨리즈

1977년11월1일 이전 씨리즈 날자 상환금은 채권 만기일에 현금 보너스 가치 증가분이 지불될 것이다. 새 보너스 금액은 각 씨리즈 1000달러당 다음과 같다.

씨리즈	만 기 일	만기현금보너스
1968/69	Nov. 1, 1982	$276.40
1972/73	Nov. 1, 1984	$378.40
1973/74	Nov. 1, 1985	$451.70
1974/75	Nov. 1, 1983	$212.90
1975/76	Nov. 1, 1984	$263.80
1976/77	Nov. 1, 1985	$327.00

채권 소유자는 이 씨리즈기간중 보너스채권금액이 만기일까지 유보되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씨리즈

지난 4년간의 씨리즈는 채권증서에 적한 이자율대신, 보다 높은 이자율이 신청될것이다. 각1000달러 일반이자채권은 1982년11월1일 195달러가 지불된다. 1981년11월1일부터 복식이자채권은 19½% 의 단식이자와 1981년11월1일까지에 얻어지는 19½% 의 복식이자를 얻는다. 1981년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복식이자채권의 각 1000달러에 대한 성장금액은 다음과 같다.

씨리즈	1981년 11월1일가격	1982년 11월1일가격
1977/78	$1,471.93	$1,758.96
1978/79	$1,394.46	$1,666.38
1979/80	$1,277.40	$1,526.50
1980/81	$1,144.17	$1,367.28

미래를 위한 적응

즉시 현금화 새 캐나다 저축채권은 언제든 현금화 시킬 수있다. 현금이 필요한 때가 생길때, 언제든지 공인 상환대리점에서 현금으로 바꾸기 쉽다. 새 캐나다 저축채권은 당신주머니의 현금과 같은 것이다.

벌금에 대한 무이자 새 캐나다 저축채권은 1981년 12월 31일 이후,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꾸고자 할때, 벌금에 대한 이자가 붙지않는다. 당신은 1981년 11월1일부터 매 경과된 달에 대한 이자를 받게된다.

캐나다국가의(후원)

캐나다 저축채권은 모든 캐나다 재정의 뒷받침을 받는다. 당신이 캐나다 저축채권을 살때, 당신은 안전하게 보장된투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손쉬운 수입

새 캐나다 저축채권은 100달러로시작해서 15,000달러까지 쉽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채권의 선택은 당신은 갖는다. 거기에는 일반적인 매년 소득분의 이자채권과 저축성장에 대한 복식이자채권이 있다.

10월13일 세일

10월13일부터 당신은 캐나다 저축채권을 공인판매소(은행, 투자딜러, 주식부로커, 트러스트회사, 그레딧·유니온) 에서 살수 있다.

Canada

훌륭한 광고는 훌륭한 신문을, 훌륭한 신문은 훌륭한 사회를 만듭니다

광고는 기사와 함께 신문의 얼굴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사로 가득찬 신문이더라도
생기가 없는 광고,
아이디어가 마른 광고는
그 신문은 절름발이식 보기 나쁜 얼굴로 독자들의 눈에 반영될 것입니다.

저희 〈한국일보-토론토〉는 6월1일 역사적인 일간지로 비약한지 29일 만에 우편파업을 당해 6주간이나 극심한 상황에 처했으나
훌륭한 광고주들의 성원결과 용기백배, 우편파업중에도 단 1호도 결간 없이 신문을 발행했읍니다.
좋은 광고의 덕분이었읍니다.

광고효과는 뛰어납니다. 즉 토론토·스타 같이 많은 부수를 발행하지는 않으나 전 교민중의 구독률은 전 캐네디안중〈스타〉지 독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본보를 이용했던 많은 비 교민광고주들도 광고효과에 놀라 계속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교민 사업가 여러분은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본보 광고란을 이용해 주시고
일반 교민들은
주위 캐네디안 업체에 본보의 존재를 알려 광고를 내게해 주십시오.
좋은 광고는 좋은 신문을 만들어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할 것입니다.

한국일보사 광고부 송광호·최성조·곽영신 삼가
대표전화 : (416) 533-2361